

2018 기획연구과제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재정 분야**

## ▮ 연구책임

이미애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 연구참여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안지선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요약

## I.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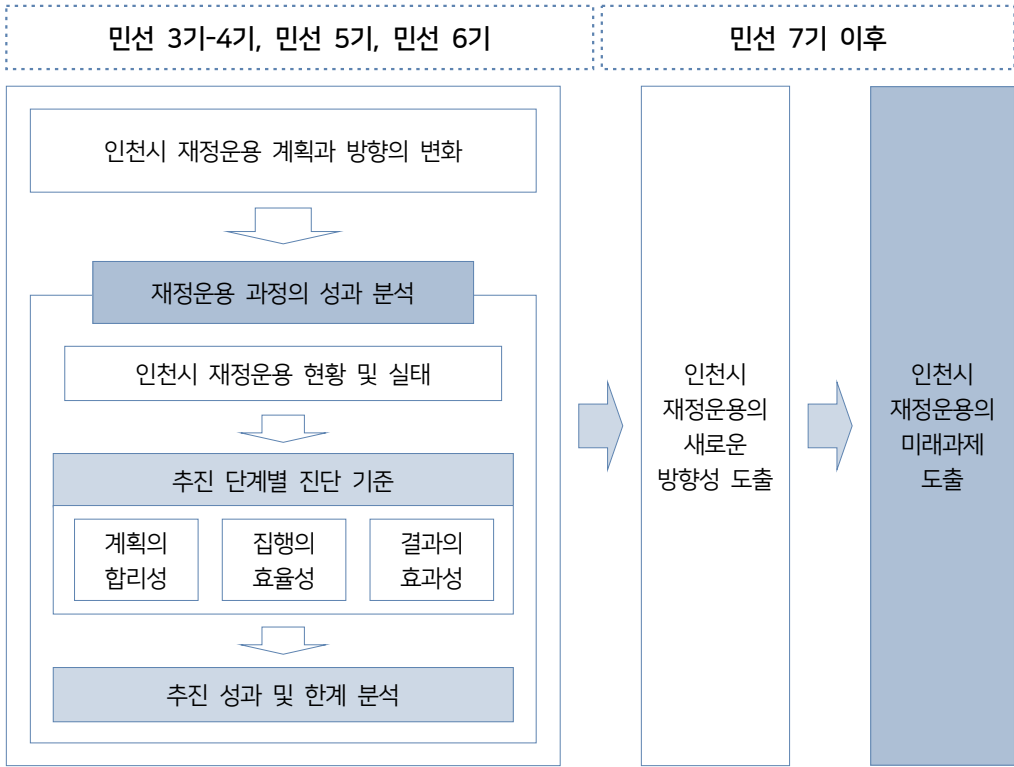
### ■ 연구 배경 및 목적

- 민선 자치 이후, 인천시의 재정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시기별 재정운용 계획 등에 따른 변화로 다양한 재정변화를 경험해 왔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같은 대형 투자사업과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난이 제기되어 오던 인천시는 2015년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되기도 하였음.
-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추진 등을 통해 2018년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되긴 하였으나, 재발 방지 및 재정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서는 과거 인천시의 재정운용 계획과 변화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인천시의 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민선 3기 이후 현재까지의 인천시 재정운용 여건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및 전략 수립 등에 기여하고자 함.

### ■ 연구 모형

- 본 연구는 민선 3기부터 민선 6기까지의 인천시 재정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첫째, 인천시 재정운용의 계획과 방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기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계획 등을 검토함.
- 둘째,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기별 인천시의 세입·세출 구조 및 규모 등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의 실태를 점검함.

- 셋째, 시기별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추진 단계(계획, 집행, 결과)별로 진단 기준(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함.
- 넷째, 시기별 인천시 재정운용의 변화와 성과 분석을 통한 인천시 재정운용의 새로운 방향과 미래 과제를 도출함.



〈요약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 II. 인천시 재정운용의 성과 분석

- 재정운용 과정의 추진 단계 즉, 계획-집행-결과에 따라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것은 다음의 <요약 표 1>과 같음.
- 첫째, 계획의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운용의 방향은 크게 ① (민선 3기·4기)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기반으로 한 국제도시로의 성장, ② (민선 5기) 경제수도 인천 건설 및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 ③ (민선 6기) 재정건전성 회복 및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으로 변화하였음.
  - 민선 3기, 4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재정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의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한 국제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하였음.
  - 민선 5기에는 경제수도 인천의 건설을 위한 경제기반의 마련과 무상보육, 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핵심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의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음.
  - 민선 6기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과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재정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분야별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민생, 교통, 문화, 환경, 해양, 경제, 교육 주권의 실현을 추진하였음.
- 세입·세출 구조와 규모를 통한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의 변화를 살펴보면, 민선 3기에서 민선 6기로 갈수록 계획한 예산 대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당초 계획보다 세입이 확보되지 못한 반면, 세출은 증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규모가 감소함.
- 둘째, 집행의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운용의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민선 3기, 4기, 5기에는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보조금과 지방채 규모는 증가한 반면, 민선 6기에는 지방세수입과 보조금이 증가하고 지방채 규모는 감소함.
  - 민선 3기와 4기의 지방세수입 감소는 정부의 거래과세 감면 정책으로 인한 등록세 등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었으며, 지방채의 증가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방채의 발행에 기인함.
  - 민선 5기에 유독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등의 자산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함.

- 민선 6기의 지방세수입 증가와 지방채 규모 감소는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소비과세 및 취득세의 증가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인천시의 세수 확보 및 부채 감축 등의 노력이 반영된 데 따름.
- 인천시 재정운용의 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민선 3기와 4기에는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세출이 증가한 반면, 민선 5기와 6기에는 사회개발비 및 일반행정비를 중심으로 세출이 증가함.
  - 민선 3기와 4기에는 지역경제개발, 교통관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국토자원보존 개발을 중심으로 세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 지역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조성 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민선 5기와 6기에는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세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채무 및 이자 상환을 위한 금융행정비의 증가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회복지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민선 3기부터 민선 6기까지 인천시의 사회복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약 10%에서 32%까지 증대되었음.
- 마지막으로, 결과 및 성과의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운용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등을 살펴보면, 민선 3기에서 민선 6기로 갈수록 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채무 규모 등이 감소함.
  - 민선 3기, 4기, 5기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단일회계연도 회계원칙에 따라 재정운용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달리 민선 6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여 재정운용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다만, 민선 6기가 재정정상단체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였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과 민선 6기의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요약 표 1> 인천시 재정운용의 시기별 성과 종합

구분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VS.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기반으로 한 성장</li> <li>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도시로의 자리매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수도 인천 건설 및 3대 핵심사업(무상보육·교육·일자리 창출) 추진</li> <li>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기존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추진</li> <li>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 추진</li> <li>인천의 7대 주권(민생·교통·문화·해양·환경·경제·교육)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대비 세입 : 유사(±2%)</li> <li>계획 대비 세출 : 감소(25%↓)</li> <li>계획 대비 이월 또는 불용 : 증가(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대비 세입 : 유사(2~5%↓)</li> <li>계획 대비 세출 : 감소(20%↓)</li> <li>계획 대비 이월 또는 불용 : 증가(7~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대비 세입 : 감소(5~11%↓)</li> <li>계획 대비 세출 : 감소(15%↓)</li> <li>계획 대비 이월 또는 불용 : 증가(5~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대비 세입 : 유사(1%~6%↓)</li> <li>계획 대비 세출 : 감소(13%↓)</li> <li>계획 대비 이월 또는 불용 : 증가(5~13%↑)</li> </ul>
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감소(5%↓)</li> <li>- 55.3% → 50.1%</li> <li>- 주요 원인 : 취득세, 등록세 감소</li> <li>• 보조금 증가(2%↑)</li> <li>- 9.3% → 11.8%</li> <li>• 지방채 증가(5%↑)</li> <li>- 1.4% → 6.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감소(11%↓)</li> <li>- 49.5% → 38.4%</li> <li>- 주요 원인 : 등록세 감소(경부 감면정책)</li> <li>• 보조금 증가(4%↑)</li> <li>- 13.0% → 16.7%</li> <li>• 지방채 증가(7%↑)</li> <li>- 3.7% → 1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감소(11%↓)</li> <li>- 48.9% → 38.3%</li> <li>- 특이 사항 : 자동차세 증가(연평균 33%↑)</li> <li>• 세외수입 증가(3%↑)</li> <li>- 21.3% → 24.7%</li> <li>• 보조금 감소(3%↓)</li> <li>- 19.1% → 15.9%</li> <li>• 지방채 증가(11%↑)</li> <li>- 1.6% → 1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증가(2%↑)</li> <li>- 46.7% → 48.3%</li> <li>- 주요 원인 : 지방소득세(연평균 20%↑)</li> <li>• 보조금 증가(0.4%↑)</li> <li>- 18.8% → 19.2%</li> <li>• 지방채 감소(1.5%↓)</li> <li>- 1.7% → 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li> <li>• 사회개발 : 42~46%</li> <li>• 경제개발 : 23~29%</li> <li>• 일반행정 : 6~8%</li> <li>▷ 연평균 증감률</li> <li>• 사회개발 : 12.9%</li> <li>• 경제개발 : 18.3%</li> <li>• 일반행정 : 9.5%</li> <li>(주요 항목)</li> <li>- 지역경제개발 43%</li> <li>- 교통관리 27%</li> <li>- 보건생활개선 24%</li> <li>- 사회보장 16%</li> <li>- 국토보존개발 11%</li> <li>▷ 사회복지 비중 약 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li> <li>• 사회개발 : 42~50%</li> <li>• 경제개발 : 23~33%</li> <li>• 일반행정 : 5~17%</li> <li>▷ 연평균 증감률주</li> <li>• 사회개발 : (품목별) 16.5%</li> <li>(사업별) 30.1%</li> <li>• 경제개발 : (품목별) 8.8%</li> <li>(사업별) 25.5%</li> <li>• 일반행정 (품목별) -2.3%</li> <li>(사업별) 22.2%</li> <li>▷ 사회복지 비중주 약 16%, 약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li> <li>• 사회개발 : 44~50%</li> <li>• 경제개발 : 23~28%</li> <li>• 일반행정 : 15~26%</li> <li>▷ 연평균 증감률</li> <li>• 사회개발 : 12.0%</li> <li>• 경제개발 : 10.1%</li> <li>• 일반행정 : 29.4%</li> <li>(주요 항목)</li> <li>- 일반공공행정 31%</li> <li>- 문화 및 관광 21%</li> <li>- 수송 및 교통 17%</li> <li>- 사회복지 13%</li> <li>- 교육 10%</li> <li>▷ 사회복지 비중 약 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li> <li>• 사회개발 : 50~52%</li> <li>• 경제개발 : 17~26%</li> <li>• 일반행정 : 15~28%</li> <li>▷ 연평균 증감률</li> <li>• 사회개발 : 10.3%</li> <li>• 경제개발 : -6.7%</li> <li>• 일반행정 : 34.7%</li> <li>(주요 항목)</li> <li>- 공공질서안전 82%</li> <li>- 일반공공행정 32%</li> <li>- 교육 23%</li> <li>- 국토지역개발 -20%</li> <li>- 수송 및 교통 -3%</li> <li>▷ 사회복지 비중 약 31%</li> </ul>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회계 세출 대비)</li> <li>• 결산상 잉여금 비중 : 감소 추세(↘)</li> <li>• 순세계잉여금 비중 : 감소 추세(↘)</li> <li>(본청 연평균 증감률)</li> <li>• 채무 발행 : 104.0%</li> <li>• 채무 상환 : 172.8%</li> <li>• 채무 잔액 : 29.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회계 세출 대비)</li> <li>• 결산상 잉여금 비중 : 감소 추세(↘)</li> <li>• 순세계잉여금 비중 : 감소 추세(↘)</li> <li>(본청 연평균 증감률)</li> <li>• 채무 발행 : 57.6%</li> <li>• 채무 상환 : -6.9%</li> <li>• 채무 잔액 : 28.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회계 세출 대비)</li> <li>• 결산상 잉여금 비중 : 증가 추세(↗)</li> <li>• 순세계잉여금 비중 : 증가 추세(↗)</li> <li>(본청 연평균 증감률)</li> <li>• 채무 발행 : 34.0%</li> <li>• 채무 상환 : 71.9%</li> <li>• 채무 잔액 : 5.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회계 세출 대비)</li> <li>• 결산상 잉여금 비중 : 증가 추세(↗)</li> <li>• 순세계잉여금 비중 : 증가 추세(↗)</li> <li>(본청 연평균 증감률)</li> <li>• 채무 발행 : -60.8%</li> <li>• 채무 상환 : -16.6%</li> <li>• 채무 잔액 : -6.3%</li> </ul>

주 : 2008년부터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가 '사업별 예산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세출 항목이 변경되었음.

### III. 인천시 재정운용의 방향 및 과제

#### 1.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

- 인천시의 재정에는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세수 감축과 부동산 경기의 진작을 위한 취득세율의 인하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배 구조의 악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 수요 증대, 그리고 인천시의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
- 이러한 환경적, 구조적, 내부적 문제들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유발하여 인천의 경제성장 및 경기회복을 둔화시키는 한편, 재정운용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의 구조로 되풀이할 우려가 있음.
-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 한계와 세입·세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첫째, 계획-집행-평가-환류 등 지방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 재정운용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리를 통해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탐색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
  - 나아가 재정위기 지정단체 경험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정부 및 인천시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 세출 구조 개선이 필요함.



## 2. 재정운용의 미래 과제 도출

### 1) 계획

####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분야별 지역개발 계획들과의 유기적 연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융통성 있는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동화 계획임.
- 현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역개발 계획(도시, 환경, 교통 등)과 별개로 운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분야별 지역개발 계획 간의 체계를 명확히 세우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지침 마련을 통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의 분야별 계획 수립 시에도 심도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한 사전 검토

- 인천시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신규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수입과 지출의 변화 분석을 통하여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한 사전 검토로 낭비성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악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 집행

#### ■ 세입 : 재정 확충

- 첫째,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기조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구조 개선(지방세 비율 확대 노력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상응하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합리적인 세목 조정을 통해 지방세수입을 확충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연계되는 조세 제도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법인분의 세율 인상 추진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노력에 대응
- 둘째, 신세원의 발굴, 과세대상의 확대, 탄력세율의 활용 등 신규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
- 예를 들어 벌크 화물세의 도입, 상하수도 원가 계산의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검토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부담금(환경 관련 부담 등)의 지방이양 노력

### ■ 세출 : 재정지출 사업 조정

-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마련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생산적 복지 필요성 증대, 기존 투자사업의 관리와 신규 사업에 대한 선택 등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배분 구조의 개편 및 재정집행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 세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재정운용의 구조조정
  -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부분적·미시적인 사업 수의 조정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유사·중복 사업의 발굴이나, 사업의 규모 조정, 중·장기계획의 마련과 같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의 수행이 필요함.

## 3) 재정관리

### ■ 통합적인 재정관리제도 운영

- 현재 지방재정관리를 위한 사전적 제도로는 계획 및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이 있으며, 사후적 제도로는 재정 위기관리제도의 차원에서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지방재정분석제도, 결산분석 등이 실시되고 있음.
- 그런데 각 제도의 개별적인 운영으로 인해 제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기능의 중복 및 상충으로 인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환류 등과 같은 재정운용의 전 과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관리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임.
- 재정운용의 과정에 맞추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연계 및 통합하고, 재정운용과 재정관리 간의 상호 연계 및 환류 과정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통합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차 례

## I 연구 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 II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 및 현황

- 1.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의 방향과 변화 ..... 9
- 2. 인천시 재정운용의 현황 ..... 17

## III 인천시 재정운용의 성과 분석

- 1. 인천시 재정운용의 분석 기준 ..... 35
- 2. 인천시 재정운용의 성과 분석 ..... 36

## IV 인천시 재정운용의 방향 및 과제

- 1. 인천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 ..... 65
- 2. 재정운용의 미래 과제 도출 ..... 66

- 참고문헌 ..... 69

## 표 차례

<표 1> 민선 3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	18
<표 2> 민선 3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	19
<표 3> 민선 3기 인천시 기능별 세출 .....	20
<표 4> 민선 4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	21
<표 5> 민선 4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	23
<표 6> 민선 4기 인천시 기능별 세출 .....	24
<표 7> 민선 5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	25
<표 8> 민선 5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	26
<표 9> 민선 5기 인천시 기능별 세출 .....	27
<표 10> 민선 6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	29
<표 11> 민선 6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	30
<표 12> 민선 6기 인천시 기능별 세출 .....	31
<표 13> 인천시 재정운용의 분석 기준 .....	35
<표 14> 민선 3기 예산 대비 세입·세출 결산 .....	36
<표 15> 민선 3기 인천시 항목별 채무 발생 규모 .....	41
<표 16> 민선 4기 예산 대비 세입·세출 결산 .....	42
<표 17> 민선 4기 인천시 항목별 채무 현황 .....	46
<표 18> 민선 5기 예산 대비 세입·세출 결산 .....	47
<표 19> 민선 5기 인천시 항목별 채무 발생 규모 .....	52
<표 20> 민선 6기 예산 대비 세입·세출 결산 .....	53
<표 21> 민선 6기 인천시 항목별 채무 발생 규모 .....	58
<표 22> 인천시 재정운용의 시기별 성과 분석결과 .....	61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4
<그림 2> 민선 3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	37
<그림 3> 민선 3기 인천시 세목별 지방세입 .....	38
<그림 4> 민선 3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	39
<그림 5> 민선 3기 인천시 세부 항목별 세출 .....	39
<그림 6> 민선 3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	40
<그림 7> 민선 4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	43
<그림 8> 민선 4기 인천시 세목별 지방세입 .....	43
<그림 9> 민선 4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	44
<그림 10> 민선 4기 인천시 세부 항목별 세출 .....	44
<그림 11> 민선 4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	45
<그림 12> 민선 5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	48
<그림 13> 민선 5기 인천시 세목별 지방세입 .....	49
<그림 14> 민선 5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	50
<그림 15> 민선 5기 인천시 세부 항목별 세출 .....	50
<그림 16> 민선 5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	51
<그림 17> 민선 5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	54
<그림 18> 민선 6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	54
<그림 19> 민선 6기 인천시 세목별 지방세입 .....	55
<그림 20> 민선 6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	56
<그림 21> 민선 6기 인천시 세부 항목별 세출 .....	56
<그림 22> 민선 6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	57



I

# 연구 개요





# I. 연구 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민선 자치 이후, 인천시의 재정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시기별 재정운용 계획 등에 따른 변화로 다양한 재정변화를 경험해 왔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같은 대형 투자사업과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난이 제기되어 오던 인천시는 2015년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되기도 하였음.
-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추진 등을 통해 2018년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되긴 하였으나, 재발 방지 및 재정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서는 과거 인천시의 재정운용 계획과 변화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인천시의 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민선 3기 이후 현재까지의 인천시의 재정운용 여건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및 전략 수립 등에 기여하고자 함.

## 2.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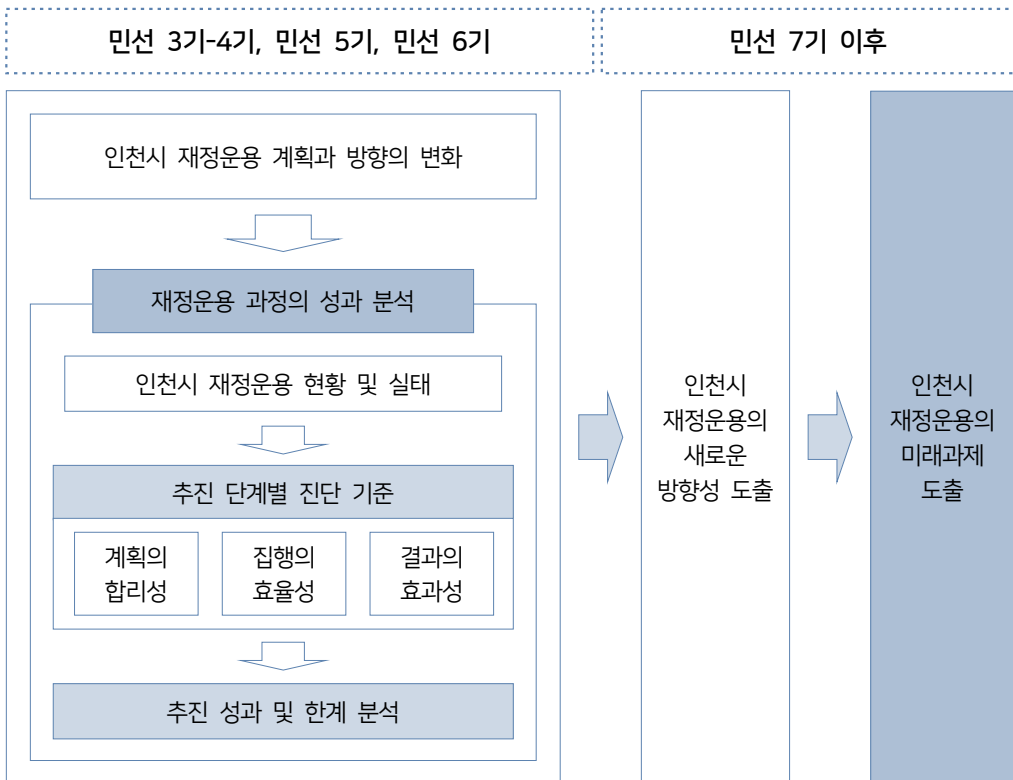
### 1)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민선 3기부터 민선 6기까지의 재정운용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민선 7기의 정책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민선 3기부터 민선 6기까지의 인천시 재정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첫째, 인천시 재정운용의 계획과 방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기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계획 등을 검토함.
- 둘째,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기별 인천시의 세입·세출 구조 및 규모 등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의 실태를 점검함.
- 셋째, 시기별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추진 단계(계획, 집행, 결과)별로 진단 기준(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함.
- 넷째, 시기별 인천시 재정운용의 변화와 성과 분석을 통한 인천시 재정운용의 새로운 방향과 미래 과제를 도출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 시간적,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시간적 범위 : 기준 연도 2002년(민선 3기), 목표 연도 2021년(민선 7기)

## 2) 연구방법

### ■ 문헌 및 현황(실태) 조사

- 시기별 인천시 재정 부문 주요 변화 검토
- 시기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비전 및 실천전략 등 검토
- 시정 성과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검토 등

### ■ 진단 및 점검

- 진단 모형 및 기준 설정
- 재정운용 추진 단계(계획, 집행, 결과)별 진단 기준(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등)에 따른 분석

### ■ 전문가 자문회의

- 진단 모형 및 기준 설정, 측정 방법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Ⅱ

#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 및 현황



## Ⅱ.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 및 현황

### 1.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의 방향과 변화

#### 1) 민선 3기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2002년-2005년)

##### (1) 재정여건 전망

###### ■ 세입 측면

- 민선 3기 초기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뚜렷한 증대 요인이 없어 세입 규모가 이전과 동일하겠으나, 후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효과로 자체수입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함.
-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지방채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회기반시설(SOC)사업과 기존 도심권의 기반시설 재구축 등에 따른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므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 세출 측면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의 대형 SOC사업 투자 수요와 법적·경직적 경비 등의 지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국책사업 연계사업, 자체 대형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수요의 증대
  - 송도 신도시 기반시설 건설, 주요 도로 개설, 공원 조성 사업 등
  - 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 문학월드컵경기장,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발생한 투자재원은 도로사업에 중점 배분

- 원도심 등 기존 시가지 균형발전 추진
-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부문의 대한 지속 투자
  -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환경 분야 수요 증대
  - 안전, 3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병목 구간 해소, 하천의 소공원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 제도개선 및 기존에 확정된 정책을 위한 지출 수요 증가
  -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에 대한 일반회계 재정 부담 증가
  - 국고보조 등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 인천시의 미래비전 가시화 및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품격 있는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재정수요의 확대 등 새로운 측면에서 재정수요 증가

#### ■ 재정관리 측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부지원 재정(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확충
- 간접적 세수 증대를 위한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 (2) 재정운용 방향

####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 목표지향적 투자로 재정투자의 실질 효과를 증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한 예산 운영
- 대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함과 동시에 적시사업의 추진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

#### ■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 중앙정부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설정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117호)」을 제정·공표함에 따라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

- 주요사업의 목적별로 사업성과를 평가·분석하여 이듬해 예산편성에 반영
- 예산 절약 및 재정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 ■ 재정운용의 건전기조 정책

- 영점기준(zero-base)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
  - 경영·관리방식의 예산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일반행정비, 행사성 경비 등의 절약 노력을 강화
-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추진하고, 무리한 공약사업 등의 이행을 위한 기존사업의 중단과 같은 매몰비용은 최소화
- 10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 불용액은 최소화

## 2) 민선 4기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2006년-2009년)

### (1) 재정여건 전망

#### ■ 세입 측면

- 민선 4기에도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뚜렷한 증대 요인은 없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효과에 따라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중앙정부의 거래세율 인하 정책으로 지방세입 증가가 둔화하겠으나,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함.

#### ■ 세출 측면

-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시책사업의 수요 증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확대, 문화·예술·교육 등의 기반 구축 사업 증가
  - GM대우 R&D 외자유치 추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 주요 도로개설, 공원조성 사업 등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원도심권 도시재생사업

- 보육시설 확충, 재활전문 치매병원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수요 증대
- 장수수당 신설, 노인·의료보호·저소득층 생계비 및 수당 지급
-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 자동차 운수업체 유류비 보조
- 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

## ■ 재정관리 측면

-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
  -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 재검토 이행
  -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 전시성·행사성 경비의 지출 억제
  -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재정 부담 최소화 및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2) 재정운용 방향

### ■ 지방재정운용 방식의 전략적 운영

-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용
-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 의무경비 우선 반영

### ■ 재정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

- 자율예산편성제도 운영 : 경상경비 총액예산제(ceiling) 운영, 회계 간 세출재원부담 이행
-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 지방재정 공시에 의한 재정 투명화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시스템 구축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품목별 예산제도 → 사업별 예산제도)
- 통합재정수지 분석

## ■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 영점 기준(Zero-base)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의 조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제도 내실화

## 3) 민선 5기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2010년-2013년)

### (1) 재정여건 전망

#### ■ 세입 측면

- 민선 5기에는 내수회복 및 수출증가 등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정부예산의 지출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고용, 물가, 서민금융 등 민생경제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실시에 따른 기대
- 자체수입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세수 일부(취득세 무관 등록세, 도시계획세)가 2011년부터 자치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시 본청의 지방세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함.

#### ■ 세출 측면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및 경기장 건설,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에 따른 재정압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와 각종 현안수요의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함.

### (2) 재정운용 방향

#### ■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 지원

- 연구개발(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 녹색성장, 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 세출구조 조정을 본격 추진

-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

## ■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의 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 각종 재정사업(복지, 농업, R&D 등)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낭비와 누수를 방지
- 민간투자, 아웃소싱, 바우처 등 시장친화적 재정운용을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충분히 활용

## 4) 민선 6기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2014년-2016(7)년)

### (1) 재정여건 전망

#### ■ 세입 측면

- 중앙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민생안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회복과 지방소비세의 정부 보전대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지방채는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함.
- 세외수입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이행에 따른 토지매각으로 연도별로 특정한 매각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 ■ 세출 측면

-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의 대형사업 마무리에 따른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기초연금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가 확대
-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의 지원이 확대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등의 지역기반 SOC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 증가
-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현안수요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 재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 재정관리 측면

-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위험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마련
  -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
  - 공공기관 포함 총부채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
  - 법정 전출금 등 의무경비 미부담액 해소

## (2) 재정운용 방향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
- 원도심 개발과 마을공동체 조정
- 3-Care(보육, 교육, 일자리 창출) 사업 완성
- 엄격한 재정관리와 재정운용
  - 조직운영 경비 동결과 투명성 및 책임성(지방채 관리 등) 강화

## 5) 소결(종합)

### ■ 민선 3기, 4기

-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기반으로,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천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타워, 인천대교, 송도국제회복합단지, 송도 테크노파크 확대 등으로 기본 사회기반시설 조성)
- 도시재생사업(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아레나파크(송의운동장),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보상 및 착공
- 인천도시철도 연장(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 자기부상열차와 BRT 시스템 도입
- 국제물류복합단지 조성(GM대우 R&D 외자유치 사업)
-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 ❖ 민선 5기

- 경제수도 인천 건설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
- 경제수도 인천의 3대 핵심사업(3-CARE) 추진 : 무상보육, 교육, 일자리

-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성장 유도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신흥 상권 개발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중 투입
- 무상보육도시, 교육도시, 청년일자리 메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 민선 6기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재정기준 강화, 지출 자율통제, 재정 절용, 투명한 공개 등)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창업 등 미래 대비 투자로 성장 기반 강화
- 7대 주권(민생, 교통, 해양, 환경 등)의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인천의 가치 재창조 : 생활 속 문화·체육·예술 활성화 사업 등
- 인천의 7대 주권 확립 : 민생, 교통, 문화, 해양, 환경, 경제, 교육
- 좋은 일자리 확대 :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고용 지원 등
-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복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2. 인천시 재정운용의 현황

### 1) 민선 3기

#### ■ 인천시 세입·세출 구조 총괄

- 민선 3기의 인천시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2002년 3조 7천억원의 세입과 2조 8천억원의 세출은 2005년 각각 4조 8천억원과 3조 8천억원으로 연평균 9.0%, 10.8%씩 증가함.
  -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2002년 각각 2조 5백억원, 1조 7천억원에서 2005년 2조 8천억원, 2조 5천억원으로 연평균 10.2%, 12.4%씩 증가함.
  -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2002년 각각 1조 7천억원, 1조 3백억원에서 2005년 2조 5백억원, 1조 3천억원으로 연평균 7.3%, 7.9%씩 증가함.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크지 않으나,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임. 특히,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큼.
  -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34.1%에서 2003년 39.1%, 2004년 30.8%를 거쳐 2005년 27.6%로 감소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회계의 세출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중은 11.4~20.0% 수준이었으나, 특별회계는 57.9~75.7%로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의 비중이 매우 큼.
-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세출 대비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는 2002년 13.3%에서 2005년 9.6%로 감소함.

-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중도 1.3~4.4% 수준으로 특별회계의 24.5~45.0%보다 매우 작음.

<표 1> 민선 3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회계별	결산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	세출	금액	세출대비 비중			금액	세출대비 비중
2002	합계	3,717,199	2,772,716	944,483	34.1	574,948	1,648	367,885	13.3
	일반회계	2,055,637	1,736,164	319,473	18.4	273,310	1,648	44,514	2.6
	특별회계	1,661,562	1,036,552	625,010	60.3	301,638		323,371	31.2
	공기업	909,109	556,732	352,377	63.3	202,848		149,526	26.9
	기타	752,453	479,820	272,633	56.8	98,787		173,845	36.2
2003	합계	4,061,246	2,918,740	1,142,507	39.1	595,709	11,270	535,528	18.3
	일반회계	2,299,406	1,916,000	383,406	20.0	297,980	1,270	84,158	4.4
	특별회계	1,761,840	1,002,740	759,100	75.7	297,729	10,000	451,371	45.0
	공기업	1,012,735	567,861	444,874	78.3	175,264	10,000	259,610	45.7
	기타	749,104	434,878	314,226	72.3	122,466		191,760	44.1
2004	합계	4,321,605	3,304,429	1,017,176	30.8	664,777	3,439	348,960	10.6
	일반회계	2,507,350	2,251,090	256,260	11.4	223,239	3,439	29,582	1.3
	특별회계	1,814,255	1,053,339	760,916	72.2	441,538		319,378	30.3
	공기업	1,080,193	619,127	461,066	74.5	290,156		170,910	27.6
	기타	734,062	434,212	299,850	69.1	151,382		148,468	34.2
2005	합계	4,807,974	3,769,346	1,038,628	27.6	676,334	1,983	360,311	9.6
	일반회계	2,753,770	2,468,441	285,329	11.6	241,240	1,983	42,106	1.7
	특별회계	2,054,204	1,300,905	753,299	57.9	435,094		318,205	24.5
	공기업	1,286,823	839,378	447,445	53.3	233,916		213,529	25.4
	기타	767,381	461,527	305,854	66.3	201,178		104,676	22.7
연평균 증감률	합계	9.0	10.8	3.2		5.6		-0.7	
	일반회계	10.2	12.4	-3.7		-4.1		-1.8	
	특별회계	7.3	7.9	6.4		13.0		-0.5	
	공기업	12.3	14.7	8.3		4.9		12.6	
	기타	0.7	-1.3	3.9		26.8		-15.6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 인천시 세입 규모

- 민선 3기의 인천시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 4조 4천억원에서 2005년 5조 5천억원으로 세입이 연평균 8.2%씩 증가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002년 각각 2조 8천억원, 1조 6천억원에서 2005년 3조 5천억원, 2조 4백억원으로, 연평균 8.0%, 8.5%씩 증가함.

○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총계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이 약 30%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약 50%, 지방교부세가 3~4%, 보조금이 8~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약 50%, 세외수입이 25~31%, 지방교부세가 4~6%, 보조금이 8~12%, 지방채 등이 4~12%가량을 차지함.

-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7~11%, 지방채 등이 9~11% 정도를 차지함.

○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이 4.4%, 세외수입이 8.7%, 지방교부세가 7.7%, 보조금이 16.7%, 지방채가 78.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민선 3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감률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합계	4,363	2,766	1,598	4,835	3,098	1,738	5,067	3,235	1,832	5,522	3,483	2,039	8.2	8.0	8.5
지방세수입	1,530 (35.1)	1,530 (55.3)		1,551 (32.1)	1,551 (50.1)		1,566 (30.9)	1,566 (48.4)		1,740 (31.5)	1,740 (50.0)		4.4	4.4	
세외수입	2,050 (47.0)	702 (25.4)	1,348 (84.4)	2,497 (51.6)	979 (31.6)	1,517 (87.3)	2,574 (50.8)	1,012 (31.3)	1,563 (85.3)	2,597 (47.0)	902 (25.9)	1,695 (83.1)	8.2	8.7	7.9
지방교부세	165 (3.8)	164 (5.9)	1 (0.1)	133 (2.8)	132 (4.3)	1 (0.1)	133 (2.6)	133 (4.1)		205 (3.7)	205 (5.9)		7.5	7.7	
증액교부금	4 (0.1)	4 (0.1)		9 (0.2)	9 (0.3)		3 (0.1)	3 (0.1)							
지방양여금	67 (1.5)	67 (2.4)		71 (1.5)	71 (2.3)		76 (1.5)	76 (2.3)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369 (8.5)	258 (9.3)	111 (6.9)	372 (7.7)	245 (7.9)	127 (7.3)	473 (9.3)	322 (10.0)	152 (8.3)	626 (11.3)	410 (11.8)	216 (10.6)	19.3	16.7	
지방채	179 (4.1)	40 (1.4)	139 (8.7)	204 (7.7)	111 (7.9)	93 (7.3)	242 (9.3)	124 (10.0)	118 (8.3)	354 (11.3)	226 (11.8)	128 (10.6)	25.5	78.1	-2.7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 인천시 세출 규모

- 민선 3기의 인천시 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 1조 7천억원에서 2005년 2조 5천억원으로 세출이 연평균 12.4%씩 증가함.
- 기능별로 세출 규모를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가 40~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뒤이어 경제개발비(농수산물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가 23~29%, 지원 및 기타경비(지방채 상환, 제지출금, 교부금)가 18~22%, 일반행정비가 6~8%, 민방위비가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능별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가 18.3%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그다음이 민방위비 15.4%, 사회개발비 12.9%, 일반행정비 9.5%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3〉 민선 3기 인천시 기능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감률
합계	1,736,164	100.0	1,916,000	100.0	2,251,090	100.0	2,468,441	100.0	12.4
일반행정비	103,252	5.9	148,981	7.8	153,273	6.8	135,592	5.5	9.5
사회개발비	782,433	45.1	798,053	41.7	955,976	42.5	1,126,483	45.6	12.9
교육 및 문화	372,616		387,341		409,096		481,184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18,698		137,292		200,747		224,300		
사회보장	198,947		206,824		271,087		309,114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92,172		66,597		75,046		111,885		
경제개발비	405,404	23.4	530,283	27.7	655,022	29.1	671,098	27.2	18.3
농수산물개발	69,688		67,901		66,265		64,773		
지역경제개발	61,966		69,813		160,142		180,915		
국토자원보존개발	202,550		273,585		288,603		278,965		
교통관리	71,200		118,983		140,012		146,445		
민방위비	58,546	3.4	69,822	3.6	79,981	3.6	89,986	3.6	15.4
지원 및 기타경비	386,531	22.3	368,861	19.3	406,837	18.1	445,282	18.0	4.8
지방채 상환	25,679		33,857		70,320		101,807		
제지출금	1,988		1,655		774		7,459		
교부금	358,864		333,349		335,743		336,016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2) 민선 4기

### ▣ 인천시 세입·세출 구조 총괄

- 민선 4기의 인천시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 5조 4천억원의 세입과 4조 5천억원의 세출은 2009년 각각 7조 9천억원과 7조 3천억원으로 연평균 13.4%, 17.5%씩 증가함.
  -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2006년 각각 3조 2천억원, 2조 8천억원에서 2009년 4조 7천억원, 4조 6천억원으로 연평균 13.8%, 17.9%씩 증가함.
  -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2006년 2조 2천억원, 1조 7천억원에서 2009년 3조 1천억원, 2조 7천억원으로 연평균 12.7%, 16.7%씩 증가함.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결산상 잉여금은 연평균 13.2%씩 줄어들며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즉,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의 비중이 감소함.
  -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20.4%에서 2007년 19.5%, 2008년 10.9%를 거쳐 2009년 8.2%로 해마다 감소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회계의 세출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중은 3.2~14.7% 수준이었으나, 특별회계는 16.8~31.3%로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의 비중이 매우 큼.
-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2006년 5.4%에서 2009년 1.5%로 감소함.
  -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중도 -0.1~2.2% 수준으로 특별회계의 4.0~15.0%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민선 4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회계별	결산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	세출	금액	세출대비 비중			금액	세출대비 비중
2006	합계	5,394,573	4,479,957	914,616	20.4	671,874	2,541	240,201	5.4
	일반회계	3,195,472	2,785,668	409,805	14.7	345,177	2,541	62,087	2.2
	특별회계	2,199,101	1,694,289	504,811	29.8	326,697		178,114	10.5
	공기업	1,325,193	1,035,305	289,888	28.0	202,139		87,749	8.5
	기타	873,908	658,984	214,923	32.6	124,558		90,365	13.7

구분	회계별	결산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	세출	금액	세출대비 비중			금액	세출대비 비중
2007	합계	5,982,494	5,005,171	977,323	19.5	689,904	1,407	286,012	5.7
	일반회계	3,544,832	3,148,650	396,182	12.6	387,975	1,407	6,801	0.2
	특별회계	2,437,662	1,856,521	581,141	31.3	301,930		279,211	15.0
	공기업	1,520,424	1,183,492	336,932	28.5	196,037		140,895	11.9
	기타	917,238	673,029	244,209	36.3	105,892		138,316	20.6
2008	합계	6,463,528	5,827,141	636,387	10.9	425,844	5,574	204,968	3.5
	일반회계	3,907,972	3,702,494	205,478	5.5	203,704	5,068	△3,293	-0.1
	특별회계	2,555,556	2,124,648	430,908	20.3	222,140	506	208,262	9.8
	공기업	1,445,391	1,187,992	257,399	21.7	141,777		115,622	9.7
	기타	1,110,165	936,656	173,509	18.5	80,363	506	92,640	9.9
2009	합계	7,857,861	7,258,997	598,864	8.2	412,899	74,591	111,374	1.5
	일반회계	4,712,285	4,566,683	145,601	3.2	138,789	4,128	2,684	0.1
	특별회계	3,145,576	2,692,314	453,263	16.8	274,110	70,463	108,690	4.0
	공기업	1,780,450	1,528,173	252,277	16.5	114,966	69,341	67,970	4.4
	기타	1,365,126	1,164,141	200,985	17.3	159,144	1,122	40,719	3.5
연평균 증감률	합계	13.4	17.5	-13.2		-15.0		-22.6	
	일반회계	13.8	17.9	-29.2		-26.2		-64.9	
	특별회계	12.7	16.7	-3.5		-5.7		-15.2	
	공기업	10.3	13.9	-4.5		-17.1		-8.2	
	기타	16.0	20.9	-2.2		8.5		-23.3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 인천시 세입 규모

- 민선 4기의 인천시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6조 7백억원에서 2009년 9조 2천억원으로 세입이 연평균 14.9%씩 증가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006년 각각 3조 9천억원, 2조 1천억원에서 2009년 6조 1천억원, 3조 7백억원으로 연평균 16.1%, 12.7%씩 증가하며,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이 특별회계보다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총계 기준 지방세수입은 2006년 32%에서 2009년 25.6%로 줄었고, 세외수입도 2006년 46.5%에서 2009년 42.1%로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2006년 4.2%에서 2009년 4.3%로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고, 보조금은 2006년 12.7%에서 2009년 18.2%로 증가함.
  -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49.5% → 38.4%),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보조금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13.0% → 16.7%).

-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81.4% → 69.7%), 보조금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12.0% → 21.3%).

○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이 6.7%, 세외수입이 17.7%, 지방교부세가 15.1%, 보조금이 26.2%, 지방채가 62.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민선 4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률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합계	6,071	3,926	2,145	6,697	4,421	2,275	7,740	5,025	2,415	9,215	6,148	3,068	14.9	16.1	12.7
지방세수입	1,945 (32.0)	1,945 (49.5)		2,207 (33.0)	2,207 (49.9)		2,282 (29.5)	2,282 (45.4)		2,360 (25.6)	2,360 (38.4)		6.7	6.7	
세외수입	2,820 (46.5)	1,072 (27.3)	1,747 (81.4)	2,874 (42.9)	1,213 (27.4)	1,662 (73.0)	3,505 (45.3)	1,514 (30.1)	1,991 (82.4)	3,884 (42.1)	1,746 (28.4)	2,138 (69.7)	11.3	17.7	7.0
지방교부세	252 (4.2)	252 (6.4)		272 (4.1)	271 (6.1)	1 (0.0)	427 (5.5)	422 (8.4)	4 (0.2)	396 (4.3)	384 (6.2)	12 (0.4)	16.3	15.1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768 (12.7)	511 (13.0)	257 (12.0)	898 (13.4)	609 (13.8)	289 (12.7)	1,100 (14.2)	686 (13.7)	414 (17.1)	1,680 (18.2)	1,027 (16.7)	653 (21.3)	29.8	26.2	36.5
지방채	286 (12.7)	146 (13.0)	140 (12.0)	445 (6.6)	121 (2.7)	323 (14.2)	126 (1.6)	120 (2.4)	6 (0.2)	895 (9.7)	630 (10.2)	265 (8.6)	46.3	62.8	23.7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 인천시 세출 규모

○ 민선 4기의 인천시 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2조 8천억원에서 2009년 4조 6천억원으로 세출이 연평균 17.9%씩 증가함.

○ 기능별로 세출 규모를 나누어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에는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가 약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뒤이어 경제개발비(농수산물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가 약 23%, 지원 및 기타경비(지방채 상환, 제지출금, 교부금)가 약 18%, 일반행정비가 약 6%, 민방위비가 약 3%인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2009년에는 사회복지비가 약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인 수송 및 교통 약 18%, 일반공공행정 16%, 교육 11%, 국토 및 지역개발 9% 등인 것으로 나타남.

〈표 6〉 민선 4기 인천시 기능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2007		구분	2008		2009	
합계	2,785,668	100.0	3,148,650	100.0	합계	3,702,494	100.0	4,566,683	100.0
일반행정비	167,018	6.0	163,188	5.2	일반공공행정	593,550	16.0	721,483	15.8
사회개발비	1,358,278	48.8	1,582,619	50.3	공공질서 및 안전	33,771	0.9	45,193	1.0
교육 및 문화	513,073		517,450		교육	417,828	11.3	527,104	11.5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92,809		350,225		문화 및 관광	161,830	4.4	224,703	4.9
사회보장	424,160		558,458		환경보호	181,356	4.9	174,739	3.8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28,236		156,486		사회복지	710,230	19.2	999,674	21.9
경제개발비	662,389	23.8	720,622	22.9	보건	90,789	2.5	106,716	2.3
농수산개발	70,846		83,470		농림해양수산	95,078	2.6	117,526	2.6
지역경제개발	146,270		155,903		산업·중소기업	35,963	1.0	90,467	2.0
국토자원 보존개발	265,560		252,826		수송 및 교통	685,504	18.5	832,841	18.2
교통관리	179,713		228,423		국토 및 지역개발	361,575	9.8	427,532	9.4
민방위비	94,707	3.4	118,052	3.7	과학기술	20,731	0.6	32,490	0.7
지원 및 기타경비	503,275	18.1	564,169	17.9	기타	314,289	8.5	266,217	5.8
지방채 상환	115,209		112,142						
제지출금	7,458		505						
교부금	380,609		451,522						

주 : 2008년부터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세출 항목이 변경되었음.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3) 민선 5기

#### ❖ 인천시 세입·세출 구조 총괄

- 민선 5기의 인천시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7조 1백억원의 세입과 6조 4천억원의 세출은 2013년 각각 8조 8천억원, 8조 6백억원으로 연평균 8.0%, 7.9%씩 증가함.
  -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2010년 각각 3조 9천억원, 3조 7천억원에서 2013년 5조 9천억원, 5조 6천억원으로 연평균 15.0%, 14.9%씩 증가함.
  -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2010년 3조 1천억원, 2조 7천억원에서 2013년 3조원, 2조 5천억원으로 연평균 2.0%, 3.4%씩 감소함.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결산상 잉여금은 연평균 9.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불용되어 이듬해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비중이 월등히 큼.
  - 일반회계는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이 0.0~4.7% 수준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15.8~21.9%로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2010년 2.8%, 2011년 -1.4%, 2012년 0.4%, 2013년 2.8%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음.
-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중도 -4.0~1.6% 수준으로, 특별회계의 3.4~6.1%보다 작음.
- 종합해 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규모는 크나,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적다는 점에서 민선 5기에는 재정지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음.

〈표 7〉 민선 5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회계별	결산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	세출	금액	세출대비 비중			금액	세출대비 비중
2010	합계	7,012,100	6,419,640	592,459	9.2	408,845	5,076	178,539	2.8
	일반회계	3,863,118	3,699,657	163,461	4.4	144,797	5,076	13,587	0.4
	특별회계	3,148,982	2,719,983	428,998	15.8	264,047	0	164,952	6.1
	공기업	1,817,465	1,588,251	229,214	14.4	145,298		83,915	5.3
	기타	1,331,517	1,131,732	199,784	17.7	118,748	0	81,037	7.2
2011	합계	6,606,292	6,228,865	377,427	6.1	462,920	2,325	△87,818	-1.4
	일반회계	4,062,183	4,063,296	△1,114	0.0	157,643	2,261	△161,018	-4.0
	특별회계	2,544,110	2,165,568	378,541	17.5	305,277	65	73,200	3.4
	공기업	1,363,518	1,143,892	219,626	19.2	117,931		101,696	8.9
	기타	1,180,591	1,021,677	158,915	15.6	187,346	65	△28,496	-2.8
2012	합계	7,376,696	6,842,325	534,371	7.8	502,796	4,070	27,505	0.4
	일반회계	4,661,927	4,614,373	47,553	1.0	114,655	4,024	△71,126	-1.5
	특별회계	2,714,769	2,227,952	486,818	21.9	388,141	45	98,630	4.4
	공기업	1,281,480	1,004,565	276,915	27.6	173,171	45	103,698	10.3
	기타	1,433,290	1,223,387	209,902	17.2	214,970	0	△5,068	-0.4
2013	합계	8,836,410	8,061,906	774,504	9.6	545,477	5,435	223,592	2.8
	일반회계	5,870,867	5,608,675	262,192	4.7	168,964	4,580	88,649	1.6
	특별회계	2,965,543	2,453,230	512,312	20.9	376,514	855	134,943	5.5
	공기업	1,534,060	1,243,090	290,970	23.4	172,218	25	118,726	9.6
	기타	1,431,483	1,210,140	221,343	18.3	204,296	830	16,217	1.3
연평균 증감률	합계	8.0	7.9	9.3		10.1		7.8	
	일반회계	15.0	14.9	17.1		5.3		89.9	
	특별회계	-2.0	-3.4	6.1		12.6		-6.5	
	공기업	-5.5	-7.8	8.3		5.8		12.3	
	기타	2.4	2.3	3.5		19.8		-41.5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 인천시 세입 규모

- 민선 5기의 인천시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8조 3백억원에서 2013년 10조 2천억원으로 세입이 연평균 8.1%씩 증가함.
  - 일반회계는 2010년 5조원에서 2013년 7조 5천억원으로 연평균 14.5%씩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010년 3조 6백억원에서 2013년 2조 7천억원으로 연평균 4.1%씩 세입이 감소함.
-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총계 기준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보조금은 2010년 대비 2013년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채는 비중이 증가함.
  - 지방세수입은 2010년 30.3%에서 2013년 28.1%로, 세외수입은 2010년 39.2%에서 2013년 34.8%로, 보조금은 2010년 18.1%에서 2013년 16.5%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 지방채는 2010년 6.9%에서 2013년 14.4%로 비중이 증가함.
  - 일반회계도 지방세수입(48.9% → 38.3%)과 보조금(19.1% → 15.9%)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지방채(1.6% → 12.9%)로 크게 증가함.
  - 특별회계는 세외수입(68.1% → 62.8%)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16.4% → 18.1%)과 지방채(15.4% → 18.1%)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이 5.5%, 세외수입이 20.3%, 지방교부세가 10.8%, 보조금이 7.6%, 지방채가 130.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채의 일반회계 기준 연평균 증가율이 130.9%로 분석된 것과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특별회계는 연평균 2.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민선 5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합계	8,027	4,966	3,061	7,812	5,444	2,367	8,570	6,228	2,341	10,151	7,455	2,696	8.1	14.5	-4.1
지방세수입	2,429	2,429		2,790	2,790		2,755	2,755		2,856	2,856		5.5	5.5	
세외수입	3,143	1,057	2,086	2,666	1,012	1,654	3,409	1,889	1,519	3,534	1,841	1,693	4.0	20.3	-6.7
지방교부세	454	453		461	459	1	556	553	3	629	616	13	11.5	10.8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2		2						
보조금	1,450	949	501	1,507	975	532	1,549	974	575	1,670	1,183	488	4.8	7.6	-0.9
지방채	551	78	472	387	208	180	299	57	242	1,463	960	503	38.5	130.9	2.1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 인천시 세출 규모

- 민선 5기의 인천시 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3조 7천억원에서 2013년 5조 6천억원으로 세출이 연평균 14.9%씩 증가함.
- 기능별로 세출 규모를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26~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일반공공행정이 14~25%, 수송 및 교통이 12~18%, 교육이 9~14%, 국토 및 지역개발이 5~8%, 문화 및 관광이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별 연평균 증감률에 있어서는 과학기술비가 64.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에 일반공공행정 31.4%, 문화 및 관광 21.1%, 수송 및 교통 16.6%, 사회복지 13.0%, 교육 9.8%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달리 공공질서 및 안전(-7.3%), 농림해양수산(-3.6%), 산업중소기업(-3.6%), 국토 및 지역개발(-1.0%)은 매해 1~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민선 5기 인천시 기능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합계	3,699,657	100.0	4,063,296	100.0	4,614,373	100.0	5,608,675	100.0	14.9
일반공공행정	625,909	16.9	615,764	15.2	654,046	14.2	1,420,180	25.3	31.4
공공질서 및 안전	45,548	1.2	93,097	2.3	49,063	1.1	36,270	0.6	-7.3
교육	373,480	10.1	506,291	12.5	656,365	14.2	494,439	8.8	9.8
문화 및 관광	168,275	4.5	196,020	4.8	216,038	4.7	298,849	5.3	21.1
환경보호	128,159	3.5	124,788	3.1	121,704	2.6	134,736	2.4	1.7
사회복지	1,001,145	27.1	1,094,780	26.9	1,213,561	26.3	1,445,251	25.8	13.0
보건	96,894	2.6	78,807	1.9	92,890	2.0	111,315	2.0	4.7
농림해양수산	114,685	3.1	89,195	2.2	106,294	2.3	102,655	1.8	-3.6
산업·중소기업	100,780	2.7	51,898	1.3	83,289	1.8	90,163	1.6	-3.6
수송 및 교통	456,789	12.3	617,482	15.2	849,318	18.4	723,767	12.9	16.6
국토 및 지역개발	281,401	7.6	223,650	5.5	243,148	5.3	272,943	4.9	-1.0
과학기술	26,530	0.7	17,683	0.4	11,761	0.3	118,219	2.1	64.6
기타	280,062	7.6	353,841	8.7	316,894	6.9	359,888	6.4	8.7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4) 민선 6기

### ■ 인천시 세입·세출 구조 총괄

- 민선 6기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8조 4천억원의 세입과 7조 9천억원의 세출은 2016년 각각 9조 6천억원과 8조 3천억원으로 연평균 6.7%, 2.6%씩 증가함.
  -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2014년 각각 5조 2천억원, 5조 4백억원에서 2016년 6조 3천억원, 6조 1천억원으로 연평균 10.8%, 9.9%씩 증가함.
  -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2014년 3조 2천억원, 2조 8천억원에서 2016년 3조 2천억원, 2조 2천억원으로 연평균 0.1%, 11.9%씩 감소함.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결산상 잉여금은 연평균 56.2%씩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출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6.6%에서 2016년 15.3%로 2배 이상 증가함.
  - 특히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비중이 월등히 큼.
  - 일반회계는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이 2.2%~3.8% 수준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14.4%~47.2%로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2014년 4백억원에서 2016년 7천 7백억원으로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은 총계 기준으로 연평균 315%씩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70%씩, 특별회계가 618.9%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은 2014년 0.6%에서 2016년 9.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일반회계(0.6% → 1.5%)보다는 특별회계의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0.5% → 30.8%)이 크게 늘어남.
- 종합해 보면 민선 6기에는 세입 확충의 노력과 세출 조정의 노력이 더해져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0〉 민선 6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회계별	결산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	세출	금액	세출대비 비중			금액	세출대비 비중
2014	합계	8,396,223	7,875,319	520,904	6.6	468,165	8,181	44,557	0.6
	일반회계	5,154,535	5,041,686	112,849	2.2	77,818	3,563	31,468	0.6
	특별회계	3,241,688	2,833,633	408,054	14.4	390,347	4,618	13,089	0.5
	공기업	1,752,209	1,501,542	250,666	16.7	220,556	567	29,543	2.0
	기타	1,489,479	1,332,091	157,388	11.8	169,791	4,051	△16,454	-1.2
2015	합계	9,491,604	8,755,073	736,531	8.4	542,564	4,553	189,415	2.2
	일반회계	6,182,040	5,997,491	184,548	3.1	142,030	4,248	38,270	0.6
	특별회계	3,309,564	2,757,582	551,982	20.0	400,534	305	151,144	5.5
	공기업	1,580,191	1,316,972	263,219	20.0	195,215	304	67,700	5.1
	기타	1,729,373	1,440,610	288,763	20.0	205,318	1	83,444	5.8
2016	합계	9,563,149	8,291,683	1,271,466	15.3	501,467	2,521	767,479	9.3
	일반회계	6,327,872	6,094,512	233,361	3.8	140,025	2,350	90,985	1.5
	특별회계	3,235,277	2,197,172	1,038,105	47.2	361,442	170	676,494	30.8
	공기업	1,727,875	1,086,925	640,950	59.0	128,380	126	512,443	47.1
	기타	1,507,402	1,110,246	397,155	35.8	233,062	44	164,050	14.8
연평균 증감률	합계	6.7	2.6	56.2		3.5		315.0	
	일반회계	10.8	9.9	43.8		34.1		70.0	
	특별회계	-0.1	-11.9	59.5		-3.8		618.9	
	공기업	-0.7	-14.9	59.9		-23.7		316.5	
	기타	0.6	-8.7	58.9		17.2		246.0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 인천시 세입 규모

- 민선 6기의 인천시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9조 7천억원에서 2016년 11조 2천억원으로 세입이 연평균 7.3%씩 증가함.
  - 일반회계는 2014년 6조 9천억원에서 2016년 8조 3천억원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014년 2조 8천 3백억원에서 2016년 2조 8천 4백억원으로 연평균 0.2%씩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세입이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총계 기준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2014년 대비 2016년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는 비중이 감소함.
  - 지방세수입은 2014년 33.1%에서 2016년 36%로, 세외수입은 2014년 16.1%에서 2016년 20.7%로, 지방교부세는 2014년 6.8%에서 2016년 7.3%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2014년 8.1%에서 2016년 1.2%로 비중이 크게 감소함.

- 특히 일반회계는 지방채 발행 부문을 제외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세입 항목 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연평균 증감률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이 11.9%, 세외수입이 13.2%, 지방교부세가 9.8%, 보조금이 11.1%씩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65.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민선 6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합계	9,720	6,893	2,827	11,218	8,019	3,200	11,182	8,344	2,838	7.3	10.0	0.2
지방세수입	3,219 (33.1)	3,219 (46.7)		3,728 (33.2)	3,728 (46.5)		4,029 (36.0)	4,029 (48.3)		11.9	11.9	27.7
세외수입	1,564 (16.1)	657 (9.5)	906 (32.0)	2,272 (20.3)	1,042 (13.0)	1,230 (38.4)	2,319 (20.7)	842 (10.1)	1,477 (52.0)	21.8	13.2	80.3
지방교부세	662 (6.8)	655 (9.5)	8 (0.3)	810 (7.2)	809 (10.1)	1 (0.0)	815 (7.3)	789 (9.5)	26 (0.9)	11.0	9.8	
조정교부금 재정보건금	1 (0.0)		1 (0.0)	4 (0.0)		4 (0.1)						
보조금	1,843 (19.0)	1,295 (18.8)	547 (19.3)	2,004 (17.9)	1,494 (18.6)	510 (15.9)	2,069 (18.5)	1,598 (19.2)	471 (16.6)	6.0	11.1	-7.2
지방채	787 (8.1)	118 (1.7)	669 (23.7)	912 (8.1)	110 (1.4)	801 (25.0)	135 (1.2)	14 (0.2)	121 (4.3)	-58.6	-65.6	-57.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45 (16.9)	949 (13.8)	696 (24.6)	1,489 (13.3)	836 (10.4)	653 (20.4)	1,815 (16.2)	1,073 (12.9)	743 (26.2)	5.0	6.3	3.3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 인천시 세출 규모

- 민선 6기의 인천시 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5조 4백억원에서 2016년 6조 1천억원으로 세출이 연평균 9.9%씩 증가함.
- 기능별로 세출 규모를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약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일반공공행정이 14%~27%, 수송 및 교통이 10%~14%, 교육이 9%~12%, 문화 및 관광이 4~7% 순인 것으로 나타남.
- 기능별 연평균 증감률에 있어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 82.2%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다음에 일반공공행정 32.1%, 교육 23%, 사회복지 11.7%, 농림해양수산 10.9%, 과학기술 10.2%, 환경보호 8.7% 순임.

- 반면에 가장 큰 연평균 감소율을 보인 부문은 보건(-37.4%)이었으며, 뒤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20.2%), 산업·중소기업(-15.8%), 문화 및 관광(-3.8%), 수송 및 교통(-2.8%) 순이었음.

<표 12> 민선 6기 인천시 기능별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합계	5,041,686	100.0	5,997,491	100.0	6,094,512	100.0	9.9
일반공공행정	706,558	14.0	1,600,488	26.7	1,233,847	20.2	32.1
공공질서 및 안전	32,323	0.6	41,449	0.7	107,336	1.8	82.2
교육	468,396	9.3	693,287	11.6	708,520	11.6	23.0
문화 및 관광	334,088	6.6	227,541	3.8	309,181	5.1	-3.8
환경보호	112,860	2.2	143,826	2.4	133,379	2.2	8.7
사회복지	1,584,663	31.4	1,805,910	30.1	1,976,144	32.4	11.7
보건	102,757	2.0	102,487	1.7	40,249	0.7	-37.4
농림해양수산	92,662	1.8	94,242	1.6	114,008	1.9	10.9
산업·중소기업	88,802	1.8	58,209	1.0	63,019	1.0	-15.8
수송 및 교통	725,954	14.4	617,424	10.3	685,951	11.3	-2.8
국토 및 지역개발	378,410	7.5	176,454	2.9	241,201	4.0	-20.2
과학기술	40,778	0.8	43,778	0.7	49,534	0.8	10.2
기타	373,436	7.4	392,397	6.5	432,143	7.1	7.6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Ⅲ

## 인천시 재정운용의 성과 분석





# Ⅲ. 인천시 재정운용의 성과 분석

## 1. 인천시 재정운용의 분석 기준

### ■ 분석 기준

- 시기별 인천시 재정운용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정운용 과정의 추진 단계 즉, 계획(예산 편성)-집행(운용 관리)-결과(결산)의 관점에서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시기별 재정운용의 성과를 진단함.
- 첫째, 계획의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운용의 합리성(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 대비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 대비 결산상 잉여금 등의 수준을 살펴봄.
- 둘째, 집행의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의 집행 구조를 살펴봄.
- 셋째, 결과의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운용 결과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채무 규모 등을 살펴봄.

〈표 13〉 인천시 재정운용의 분석 기준

계획	집행	결과
계획의 합리성(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결과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li> <li>•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li> <li>•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 집행 구조</li> <li>• 세출 집행 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상 잉여금</li> <li>• 다음연도 이월액</li> <li>• 순세계잉여금</li> <li>• 채무 규모(발행, 상환, 잔액)</li> </ul>

## 2. 인천시 재정운용의 성과 분석

### 1) 민선 3기

#### ■ 계획의 합리성

- 민선 3기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의 관계를 살펴봄.
- 첫째,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은 2002년, 2004년, 2005년의 경우 약 2%가 적게 징수된 반면, 2003년의 경우에는 2% 정도 초과 징수되어 계획 대비 세입운용이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다라도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이  $\pm 2\%$  내외로 나타나, 계획 대비 세입운용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 둘째,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은 2002년에서 2005년 모두 25%가량 적게 지출되어 계획 대비 세출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약 15%, 특별회계는 약 40%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 대비 지출관리는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셋째,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은 매년 25%가량이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의 계획 대비 지출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표 14> 민선 3기 예산 대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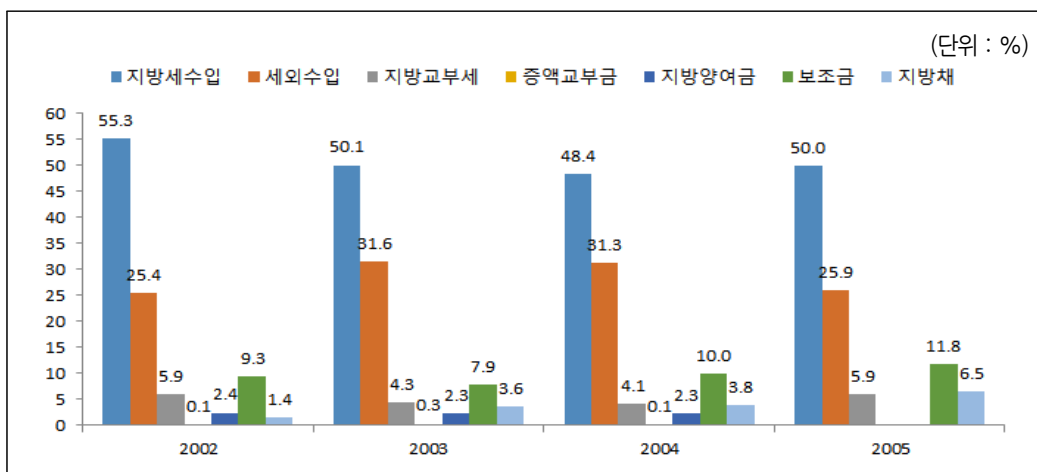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결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B)	(B/A)	세출(C)	(C/A)	D=(B-C)	(D/A)
2002	합계	3,728	3,717	99.7	2,772	74.4	944	25.3
	일반회계	2,038	2,055	100.9	1,736	85.2	319	15.7
	특별회계	1,689	1,661	98.4	1,036	61.3	625	37.0
2003	합계	3,982	4,061	102.0	2,918	73.3	1,142	28.7
	일반회계	2,271	2,299	101.2	1,916	84.4	383	16.9
	특별회계	1,711	1,761	103.0	1,002	58.6	759	44.4
2004	합계	4,393	4,321	98.4	3,304	75.2	1,017	23.2
	일반회계	2,582	2,507	97.1	2,251	87.2	256	9.9
	특별회계	1,810	1,814	100.2	1,053	58.2	760	42.0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결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B)	(B/A)	세출(C)	(C/A)	D=(B-C)	(D/A)
2005	합계	4,914	4,807	97.8	3,769	76.7	1,038	21.1
	일반회계	2,849	2,753	96.7	2,468	86.6	285	10.0
	특별회계	2,064	2,054	99.5	1,300	63.0	753	36.5
연평균 증감률	합계	9.6	9.0		10.8		3.2	
	일반회계	11.8	10.2		12.4		-3.7	
	특별회계	6.9	7.3		7.9		6.4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 집행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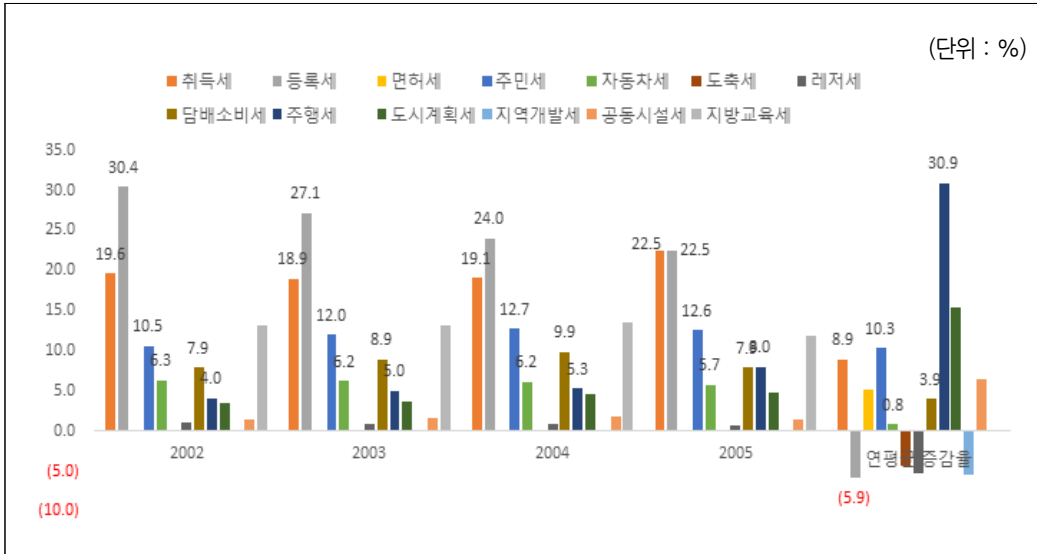
- 민선 3기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의 집행 구조를 살펴봄.
- 첫째, 세입의 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감소하고,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5.3%에서 2005년 50%로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2002년 9.3%에서 2005년 11.8%로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 비중도 2002년 1.4%에서 2005년 6.5%로 늘어남.
  -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수입 비중이 감소한 데에는 지방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세가 2002년 30.4%에서 2005년 22.5%로 약 8%, 연평균 5.9%씩 감소한 것이 주된 영향으로 보임.



〈그림 2〉 민선 3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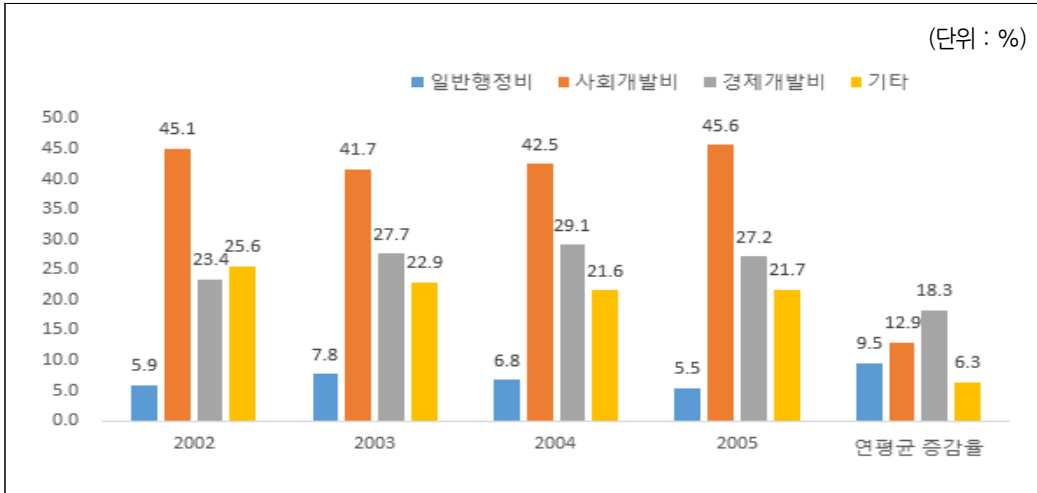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그림 3〉 민선 3기 인천시 세목별 지방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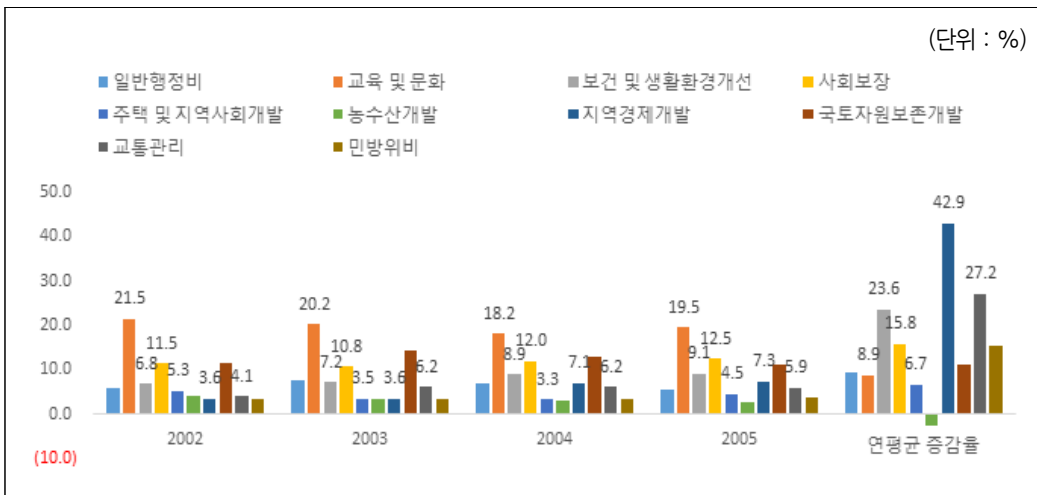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세정연감.

- 둘째, 세출의 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42~46%로 경제개발비 23~29%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가 18.3%로 사회개발비 12.9%를 웃돌고 있어 경제개발비의 지출 증가세를 엿볼 수 있음.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교육 및 문화 18~22%이며, 그다음이 사회보장 11~13%,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7~9%, 지역경제개발 3~5% 등의 순임.
-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개발이 매년 42.9%씩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뒤이어 교통관리 27.2%,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3.6%, 사회보장 15.8%, 국토자원보존개발 11.3%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민선 3기의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지역경제개발, 교통관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국토자원보존개발 순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민선 3기에 추진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의 대형 SOC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그림 4〉 민선 3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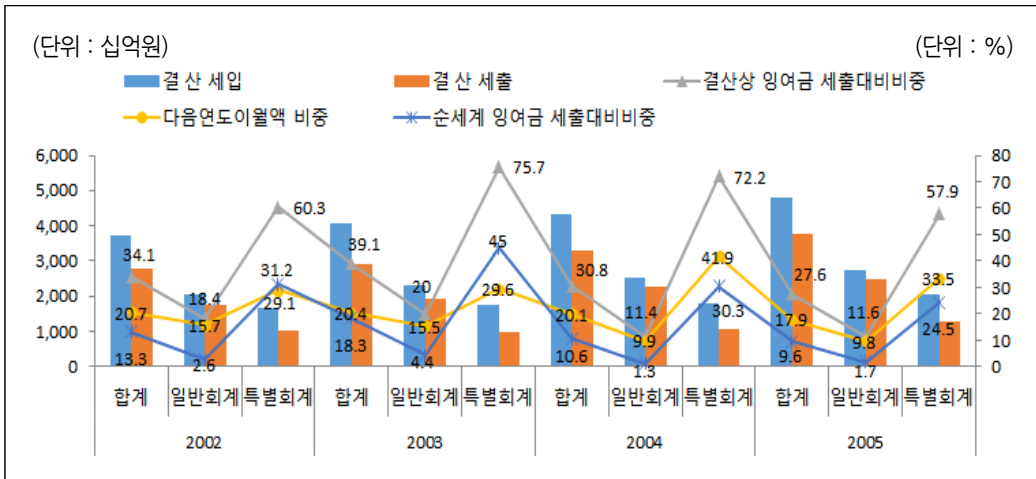
〈그림 5〉 민선 3기 인천시 세부 항목별 세출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 결과의 효과성

- 민선 3기 인천시 재정운용 결과(결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와 채무 규모를 살펴봄.
- 첫째,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은 2002년 34.1%에서 2005년 27.6%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당연도에 세입을 지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일반회계의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중이 2002년 18.4%에서 2005년 11.6%로 크게 감소함.
- 둘째,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의 비중은 전체 세출에서 18~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비중은 2002년 15.7%에서 2005년 9.8%로 감소하며 연평균 4.1%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2002년 29.1%에서 2005년 33.5%로 연평균 1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지방채 상환 및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은 2002년 13.3%에서 2005년 9.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특별회계의 1/4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출 대비 비중이 2002년 2.6%에서 2005년 1.7%로 감소하고 있어 재정운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민선 3기 인천시 결산상 수입·세출 처리 결과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수입세출결산서.

- 넷째, 채무 규모는 발행액이 연평균 104%씩 증가함에 따라 상환액이 172.8%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잔액이 연평균 29.9%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82.7%씩, 특별회계는 연평균 138.2%씩 채무 발행액이 증가함.
  - 채무잔액의 증가율은 일반회계가 연평균 79.1%로 특별회계의 11%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5〉 민선 3기 인천시 항목별 채무 발생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감률
합계	발행액		199,260	406,534	104.0
	상환액		48,120	131,264	172.8
	채무잔액	620,330	771,290	1,046,581	29.9
일반회계	발행액		122,700	224,193	82.7
	상환액		4,655	26,553	470.4
	채무잔액	143,100	261,145	458,784	79.1
특별회계	발행액		76,560	182,341	138.2
	상환액		43,465	104,771	141.0
	채무잔액	477,230	510,145	587,797	11.0
공기업	발행액		64,560	182,341	182.4
	상환액		43,198	104,482	141.9
	채무잔액	475,804	497,166	575,025	9.9
기타	발행액		12,000		-100.0
	상환액		267	229	-14.2
	채무잔액	1,426	12,979	12,772	199.3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2) 민선 4기

### ❖ 계획의 합리성

- 민선 4기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의 관계를 살펴봄.
- 첫째,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은 계획보다 2~5%가량 적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계획 대비 세입운용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이 계획 3~8%가량 적게 징수된 것으로 분석돼, 계획 대비 세입운용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은 계획보다 20%가량 적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획보다 25%가량 적게 지출되었던 민선 3기에 비해서는 계획 대비 세출운용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민선 3기에는 일반회계가 약 15%, 특별회계가 약 40% 적게 지출되었으나, 민선 4기에는 일반회계가 약 10%, 특별회계가 약 20~30% 적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음.

○ 셋째,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은 매년 7~16%가량이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 민선 3기의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중이 약 2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표 16> 민선 4기 예산 대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십억원, %)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결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B)	(B/A)	세출(C)	(C/A)	D=(B-C)	(D/A)
2006	합계	5,574	5,395	96.8	4,480	80.4	915	16.4
	일반회계	3,264	3,195	97.9	2,786	85.4	410	12.6
	특별회계	2,310	2,199	95.2	1,694	73.3	505	21.9
2007	합계	6,086	5,982	98.3	5,005	82.2	977	16.1
	일반회계	3,709	3,545	95.6	3,149	84.9	396	10.7
	특별회계	2,377	2,438	102.6	1,857	78.1	581	24.4
2008	합계	6,662	6,464	97.0	5,827	87.5	636	9.5
	일반회계	4,078	3,908	95.8	3,702	90.8	205	5.0
	특별회계	2,584	2,556	98.9	2,125	82.2	431	16.7
2009	합계	8,294	7,858	94.7	7,259	87.5	599	7.2
	일반회계	4,892	4,712	96.3	4,567	93.4	146	3.0
	특별회계	3,403	3,146	92.4	2,692	79.1	453	13.3
연평균 증감률	합계	14.2	13.4		17.5		-13.2	
	일반회계	14.4	13.8		17.9		-29.2	
	특별회계	13.8	12.7		16.7		-3.5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 집행의 효율성

○ 민선 4기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의 집행 구조를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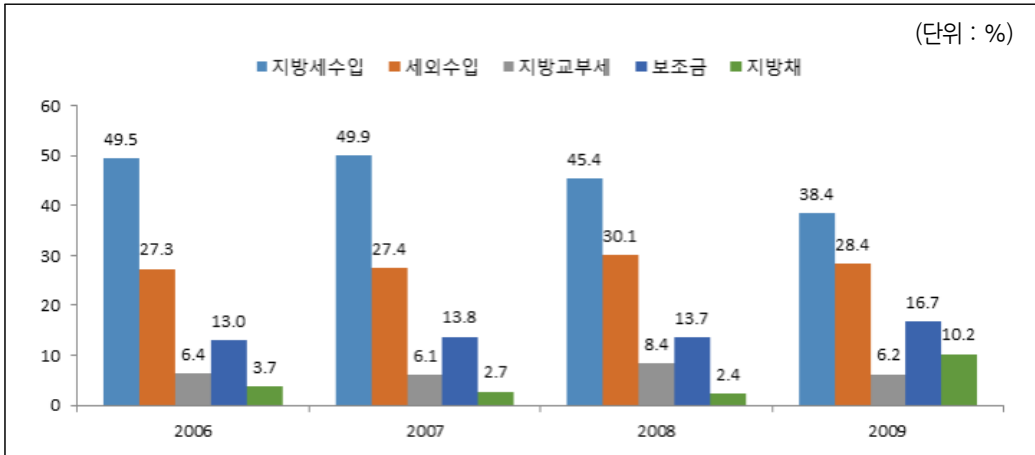
○ 첫째, 세입의 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감소하고,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9.5%에서 2009년 38.4%로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2006년 13%에서 2009년 16.7%로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 비중도 2006년 3.7%에서 2009년 10.2%로 늘어남.

- 민선 3기의 연장선에 놓고 보더라도 지방세수입은 2005년의 50.0%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 비중은 2005년의 보조금 11.8%와 지방채 6.5%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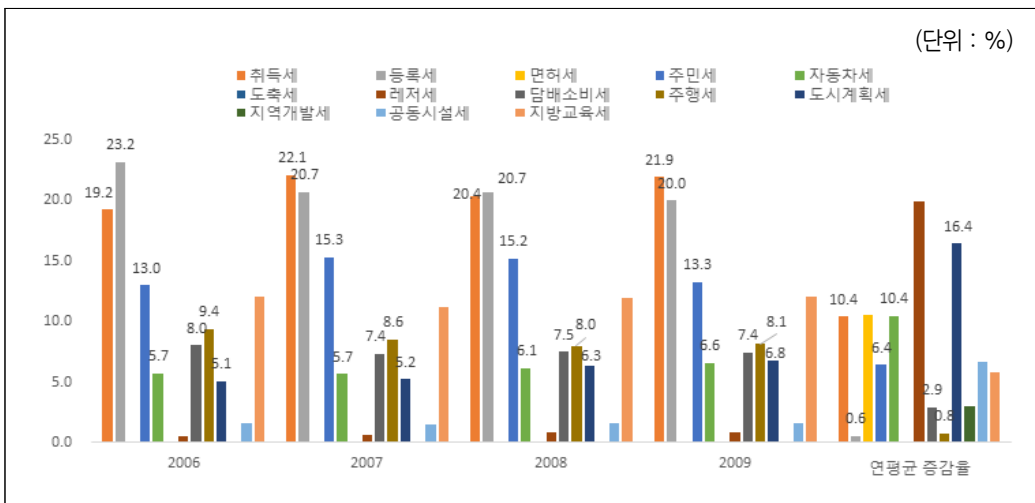
-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수입 비중이 감소한 데에는 지방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세가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감면정책으로 인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취득세율 2%→1.5%→1%, 등록세율 3%→1.5%→1%).



〈그림 7〉 민선 4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주: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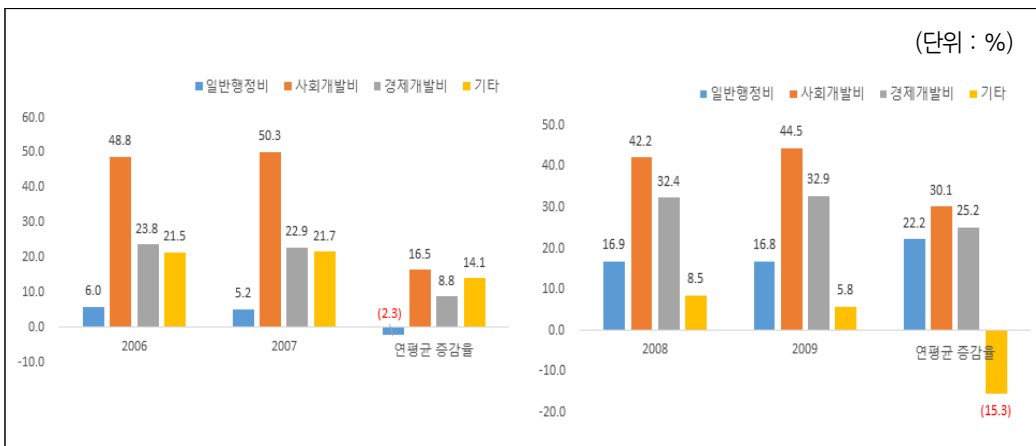
〈그림 8〉 민선 4기 인천시 세목별 지방세입

자료: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둘째, 세출의 집행 구조를 살펴보는 데 있어 민선 4기에는 예산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세출 항목이 동일하지 않아 지출 변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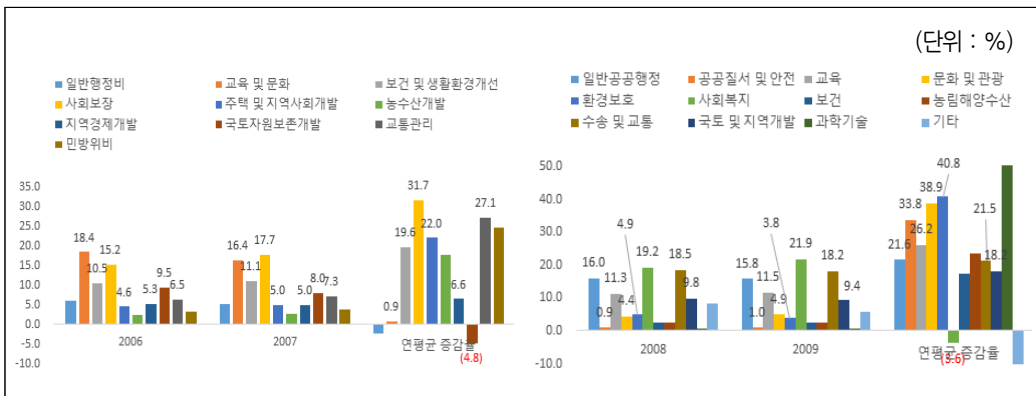
-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세출 항목이 변경되었음.

-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8년 이전에는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세출 비중과 증가율을 보인 반면, 2008년 이후에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세출이 비교적 대등하게 이루어져 비중이나 증가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민선 4기에는 민선 3기와 비슷하게 사회보장,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민선 4기에서 추진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인천도시철도 연장사업 등의 대규모 SOC사업 투자와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그림 9〉 민선 4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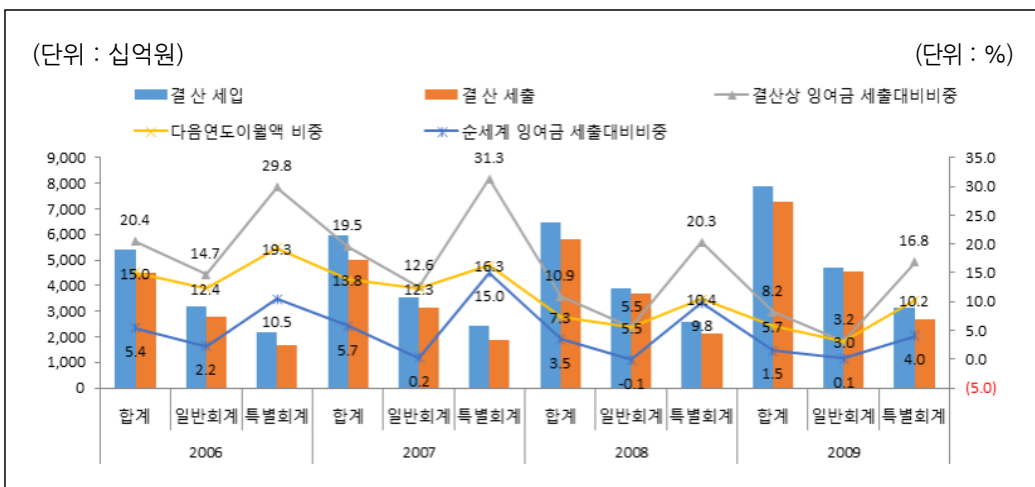


〈그림 10〉 민선 4기 인천시 세부 항목별 세출

주 : 1)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2) 2008년부터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세출 항목이 변경됨.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 결과의 효과성

- 민선 4기 인천시 재정운용 결과(결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결산상 세입·세출 결과와 채무 규모를 살펴봄.
- 첫째,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은 2006년 20.4%에서 2009년 8.2%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당연도에 세입을 지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일반회계의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중이 2006년 14.7%에서 2009년 3.2%로 대폭 감소함.
  - 민선 3기의 연장선에 놓고 보더라도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이 2005년의 총계 27.6%와 일반회계 11.6%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둘째,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의 비중은 전체 세출에서 5.7~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비중은 2006년 12.4%에서 2009년 3.0%로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06년 19.3%에서 2009년 10.2%로 감소함.
- 셋째, 지방채 상환 및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은 2006년 5.4%에서 2009년 1.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특별회계의 1/5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세출 대비 비중이 2006년 2.2%에서 2009년 0.1%로 감소하고 있어 재정운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그림 11〉 민선 4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넷째, 채무 규모는 발행액이 연평균 57.6%씩 증가하고 상환액이 연평균 6.9%씩 감소함에 따라 채무잔액이 연평균 28.2%씩 증가함.
-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68.3%씩, 특별회계는 연평균 49.5%씩 채무 발행액이 증가함.
- 채무잔액 증가율은 일반회계가 30.0%로 특별회계의 26.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7〉 민선 4기 인천시 항목별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률
합계	발행액	266,391	252,187	301,036	1,042,438	57.6
	상환액	198,912	72,085	102,255	160,328	-6.9
	채무잔액	1,114,006	1,294,107	1,492,983	2,348,383	28.2
일반회계	발행액	128,177	114,960	93,300	610,490	68.3
	상환액	11,352	13,543	12,567	104,306	109.4
	채무잔액	575,610	677,027	757,760	1,263,944	30.0
특별회계	발행액	138,214	137,227	177,805	461,948	49.5
	상환액	187,560	58,542	89,688	55,842	-33.2
	채무잔액	538,396	617,081	705,291	1,084,439	26.3
공기업	발행액	118,951	135,078	172,805	168,523	12.3
	상환액	187,346	58,334	89,443	55,842	-33.2
	채무잔액	506,631	583,375	666,735	782,601	15.6
기타	발행액	19,263	2,149	5,000	263,425	139.1
	상환액	214	208	244		-100.0
	채무잔액	31,765	33,706	38,557	301,838	111.8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3) 민선 5기

#### ■ 계획의 합리성

- 민선 5기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의 관계를 살펴봄.
- 첫째,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은 약 5~11%가 적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세입계획 대비 재정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이 5%가량 적게 징수되어 비교적 적절한 세입운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회계는 20%가량 적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계획 대비 적절한 세입운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둘째,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은 약 15%가 적게 지출되어 계획 대비 세출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가량, 특별회계는 20~30%가량 계획 대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 대비 지출관리는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셋째,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은 매년 5~8%가량이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의 계획 대비 지출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 민선 3기, 4기보다는 비교적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18〉 민선 5기 예산 대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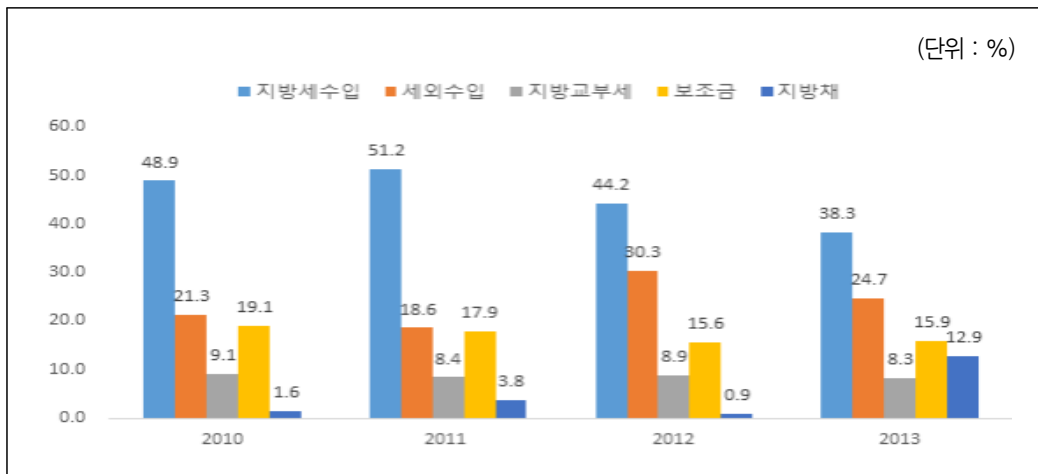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결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B)	(B/A)	세출(C)	(C/A)	D=(B-C)	(D/A)
2010	합계	7,507	7,012	93.4	6,420	85.5	592	7.9
	일반회계	4,130	3,863	93.5	3,700	89.6	163	3.9
	특별회계	3,376	3,149	93.3	2,720	80.6	429	12.7
2011	합계	7,426	6,606	89.0	6,229	83.9	377	5.1
	일반회계	4,400	4,062	92.3	4,063	92.3	△1	0.0
	특별회계	3,026	2,544	84.1	2,166	71.6	379	12.5
2012	합계	8,320	7,377	88.7	6,842	82.2	534	6.4
	일반회계	4,863	4,662	95.9	4,614	94.9	48	1.0
	특별회계	3,458	2,715	78.5	2,228	64.4	487	14.1
2013	합계	9,300	8,836	95.0	8,062	86.7	775	8.3
	일반회계	5,853	5,871	100.3	5,609	95.8	262	4.5
	특별회계	3,448	2,966	86.0	2,453	71.1	512	14.8
연평균 이감률	합계	7.4	8.0		7.9		9.3	
	일반회계	12.3	15.0		14.9		17.1	
	특별회계	0.7	-2.0		-3.4		6.1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 집행의 효율성

- 민선 5기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의 집행 구조를 살펴봄.

- 첫째, 세입의 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보조금은 감소하고, 세외수입과 지방채 발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민선 3기, 4기와는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8.9%에서 2013년 38.3%로 감소하고, 보조금은 2010년 19.1%에서 2013년 15.9%로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2010년 21.3%에서 2013년 24.7%로 증가하고, 지방채 발행 비중도 2010년 1.6%에서 2013년 12.9%로 증가함.
- 민선 4기의 연장선에 놓고 본다면 지방세수입 비중은 2009년 38.4%에서 2010년과 2011년을 거치며 51.2%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줄어들며 2013년에 38% 수준으로 회귀한 모습임.
- 세외수입 비중은 민선 5기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선 3기의 25~32%, 민선 4기의 27~30%보다는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0%로 낮은 수준임.
- 보조금 비중은 민선 3기와 민선 4기 동안 보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민선 5기 동안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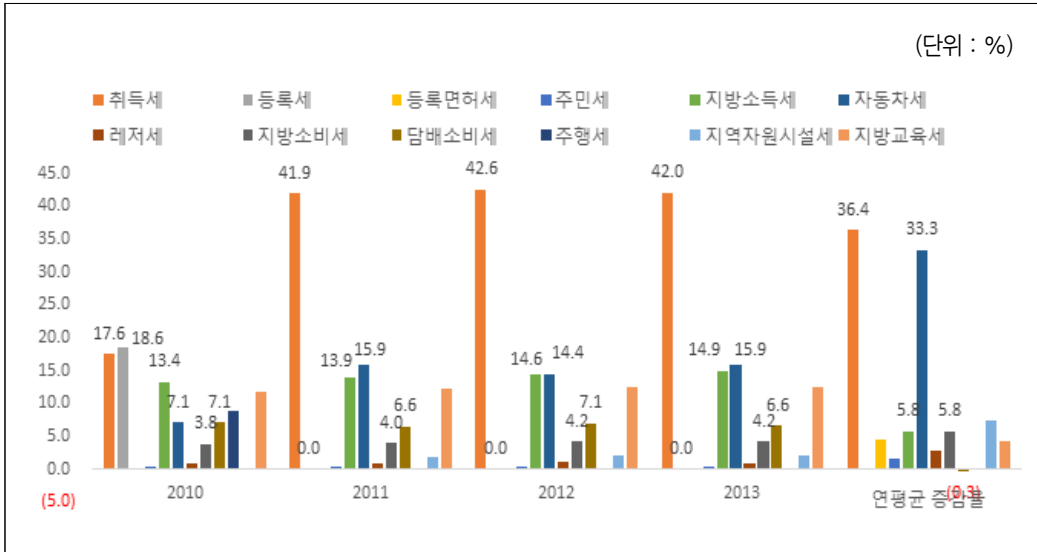


〈그림 12〉 민선 5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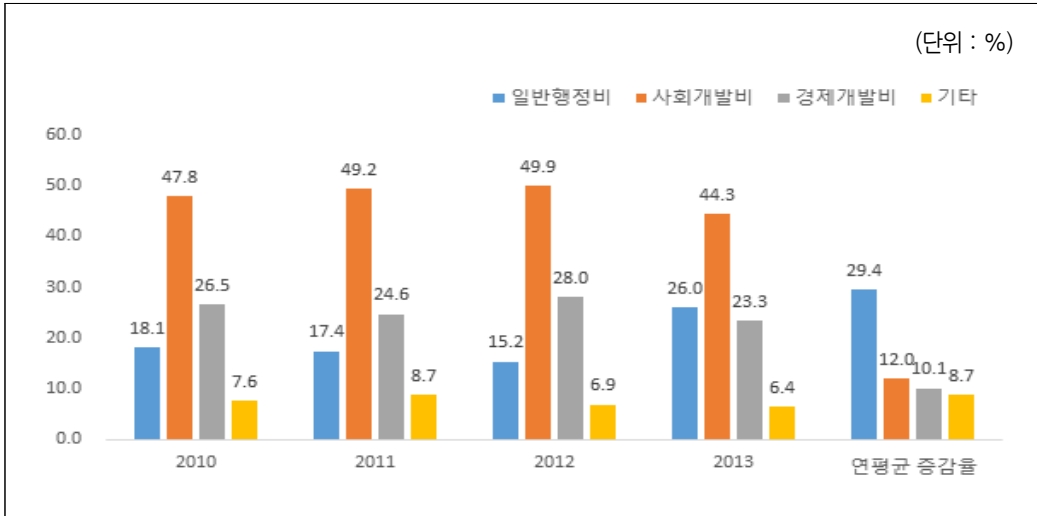
- 세목별 지방세수입의 살펴보았을 때,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차세의 수입이 연평균 33.3%씩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임.
- 이는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를 통한 인천시의 세수 확보 노력이 세수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그림 13〉 민선 5기 인천시 세목별 지방세입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세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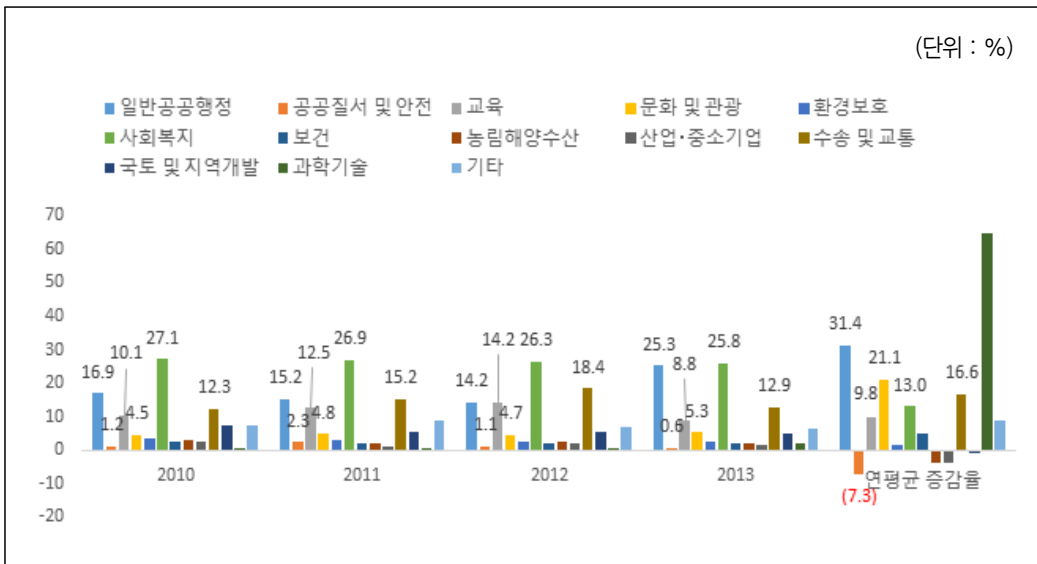
- 둘째, 세출의 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44~50% 정도로 경제개발비 23~28%, 일반행정비 15~26%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9.4%로 사회개발비 12.0%, 경제개발비 10.1%를 크게 웃돌고 있어 일반행정비의 지출 증가세를 엿볼 수 있음.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26~27%이며, 그다음이 일반공공행정 14~25%, 교육 9~14%, 수송 및 교통 12~18%, 문화 및 관광 약 5% 등의 순임.
-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일반공공행정이 매년 31.4%씩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뒤이어 문화 및 관광 21.1%, 수송 및 교통 16.6%, 사회복지 13.0%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민선 5기의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 순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민선 5기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완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한 결과라고 판단됨.



〈그림 14〉 민선 5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그림 15〉 민선 5기 인천시 세부 항목별 세출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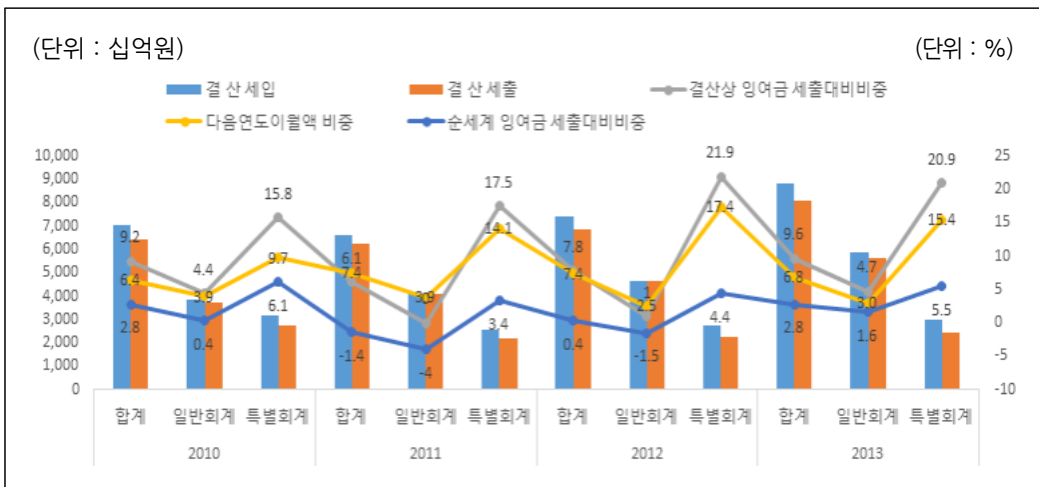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 결과의 효과성

- 민선 5기 인천시 재정운용 결과(결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결산상 세입·세출 결과와 채무 규모를 살펴봄.



- 첫째,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은 6~10% 수준 내에서 해당연도의 세입을 지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일반회계의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중은 2.5~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민선 3기, 4기와 비교해 보더라도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이 낮은 수준임.
- 둘째,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의 비중은 전체 세출에서 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비중은 2.5~4% 수준으로 민선 3기의 10~16%, 민선 4기의 3~12%와 비교하여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출범 첫해와 마지막 해의 추세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일반회계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 비중이 민선 3기에 15.7%에서 9.8%로, 민선 4기에 12.4%에서 3.0%로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선 5기에도 3.9%에서 3.0%로의 감소세를 유지함.
- 셋째, 지방채 상환 및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은 2010년 2.8%에서 2011년과 2012년을 거치며 -1.5%까지 하락하였다가 2013년 2.8%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임.
  - 각 민선 정부의 출범 첫해와 마지막 해의 추세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민선 3기에는 13.3%에서 9.6%로, 민선 4기에는 5.4%에서 1.5%로 감소함.
  - 민선 5기에는 2.8% 수준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6〉 민선 5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넷째, 채무 규모는 발행액이 연평균 34.0%씩 증가하였으나, 상환액이 이를 웃도는 71.9%씩 늘어남에 따라 채무잔액이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선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채무 발행액과 채무잔액의 규모를 거듭 확대해 온 민선 3기, 4기에 비해 민선 5기에는 채무 규모의 증가폭이 매우 적었음.
- 이는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민선 5기의 채무감축 기조에 따른 재정운용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음.

〈표 19〉 민선 5기 인천시 항목별 채무 발생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합계	발행액	571,931	194,285	263,077	1,375,966	34.0
	상환액	200,782	173,646	201,167	1,019,335	71.9
	채무잔액	2,719,532	2,740,170	2,802,081	3,158,712	5.1
일반회계	발행액	49,253	15,000	20,600	872,780	160.7
	상환액	25,977	55,027	59,153	854,206	220.4
	채무잔액	1,287,220	1,247,193	1,111,024	1,129,598	-4.3
특별회계	발행액	522,678	179,285	242,477	503,186	-1.3
	상환액	174,805	118,619	142,014	165,129	-1.9
	채무잔액	1,432,312	1,492,977	1,691,057	2,029,114	12.3
공기업	발행액	133,242	99,584	104,169	148,874	3.8
	상환액	106,731	118,619	141,753	162,653	15.1
	채무잔액	809,112	790,076	850,110	836,331	1.1
기타	발행액	389,436	79,701	138,308	354,312	-3.1
	상환액	68,074		261	2,476	-66.9
	채무잔액	623,200	702,901	840,947	1,192,783	24.2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4) 민선 6기

##### ■ 계획의 합리성

- 민선 6기 인천시 재정운용 계획(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 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의 관계를 살펴봄.
- 첫째,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은 1~6%가량 적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계획 대비 비교적 적절한 세입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일반회계는 2014년에 약 5%, 2015년에 약 0.5%가 적게 징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0.7% 정도가 초과 징수되어 계획 대비 세입운용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 특별회계는 3~10% 정도 적은 세입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획 대비 세입운용은 비교적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 둘째,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은 13~14%가량 적게 지출되었으나, 민선 3기에 약 25%, 민선 4기에 약 20%, 민선 5기에 약 15%의 지출이 적게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세출관리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은 3~7% 정도가 적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계획 대비 지출관리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은 매년 5~13%가량이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3% 수준을 유지한 일반회계보다는 11~31%를 기록한 특별회계의 계획 대비 지출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은 민선 3기와 4기에 비해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민선 5기와 6기에 이르면서 점차 관리되고 있음.

〈표 20〉 민선 6기 예산 대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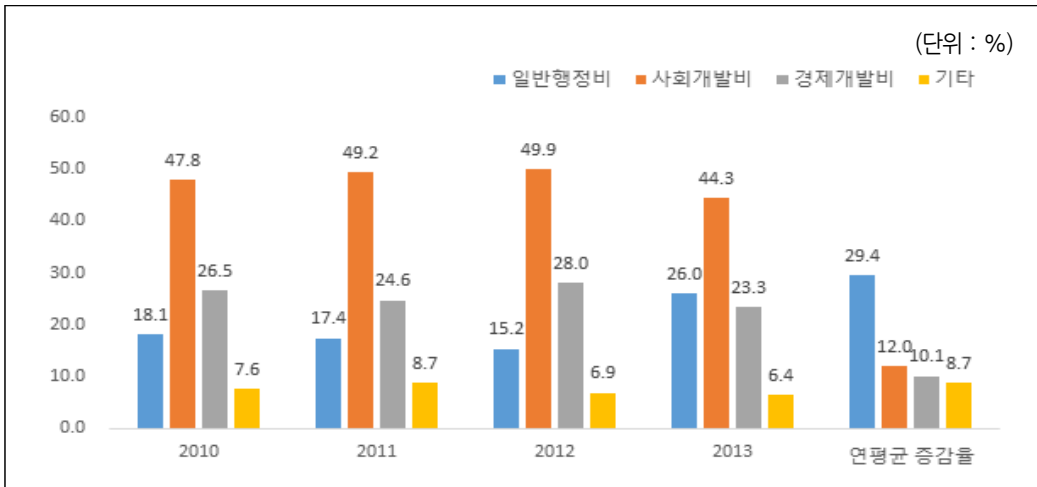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결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B)	(B/A)	세출(C)	(C/A)	D=(B-C)	(D/A)
2014	합계	9,000	8,396	93.3	7,875	87.5	521	5.8
	일반회계	5,419	5,155	95.1	5,042	93.0	113	2.1
	특별회계	3,580	3,242	90.5	2,834	79.2	408	11.4
2015	합계	9,790	9,492	97.0	8,755	89.4	737	7.5
	일반회계	6,210	6,182	99.5	5,997	96.6	185	3.0
	특별회계	3,580	3,310	92.4	2,758	77.0	552	15.4
2016	합계	9,608	9,563	99.5	8,292	86.3	1,271	13.2
	일반회계	6,287	6,328	100.7	6,095	96.9	233	3.7
	특별회계	3,321	3,235	97.4	2,197	66.2	1,038	31.3
연평균 증감률	합계	3.3	6.7		2.6		56.2	
	일반회계	7.7	10.8		9.9		43.8	
	특별회계	-3.7	-0.1		-11.9		59.5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 집행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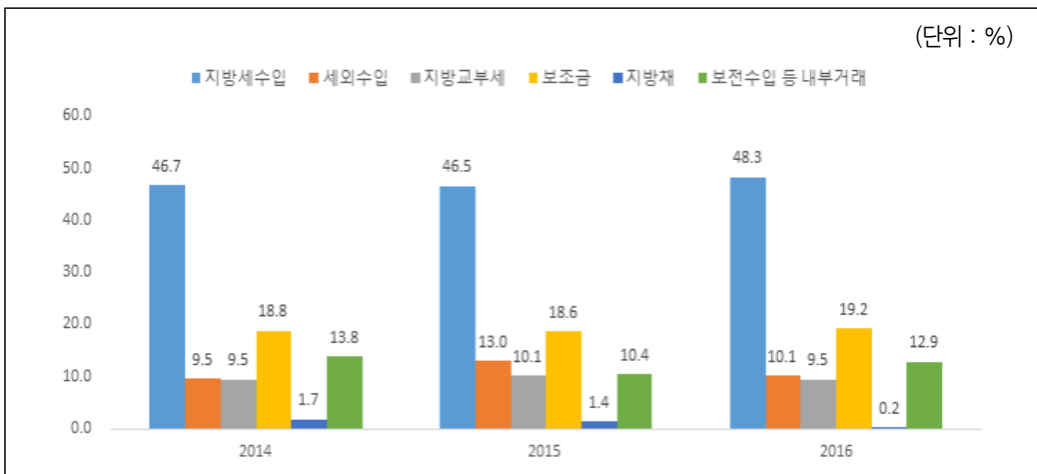
- 민선 6기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의 집행 구조를 살펴봄.

- 첫째, 세입의 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지방채 발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선 정부들과는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민선 3기, 4기, 5기에는 지방세수입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민선 6기에는 2014년 46.7%에서 2016년 48.3%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
- 또한, 민선 3기, 4기, 5기에는 지방채의 발행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민선 5기에는 2014년 13.8%에서 2016년 12.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7〉 민선 5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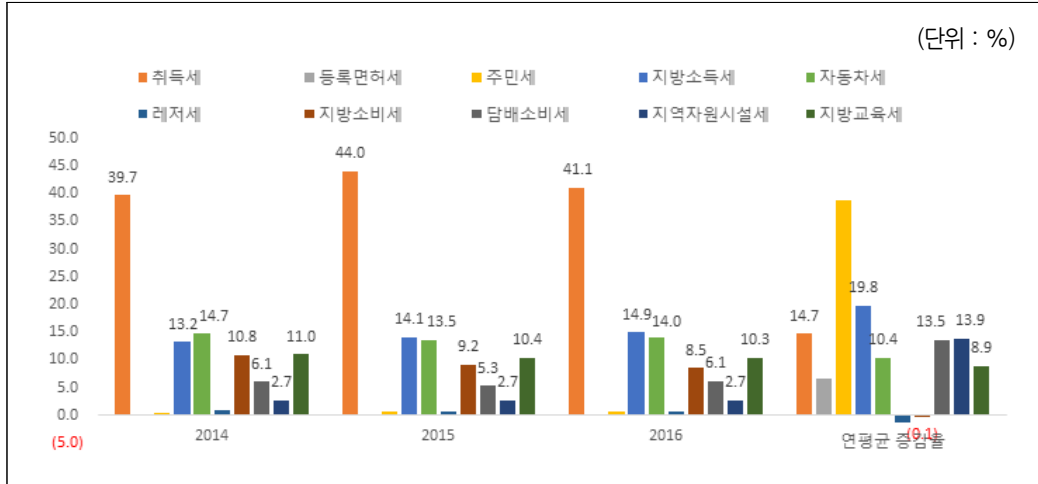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그림 18〉 민선 6기 인천시 항목별 세입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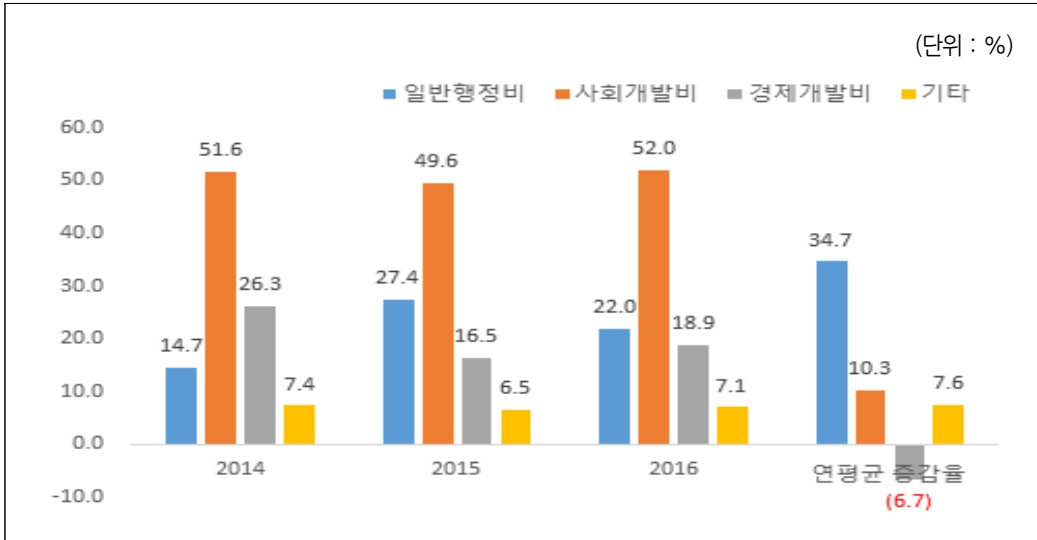
- 세목별로 지방세수입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지방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19.8%로 가장 크며, 뒤이어 취득세 14.7%, 지역자원시설세 13.9%, 담배소비세 13.5%, 자동차세 10.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 민선 6기 인천시 세목별 지방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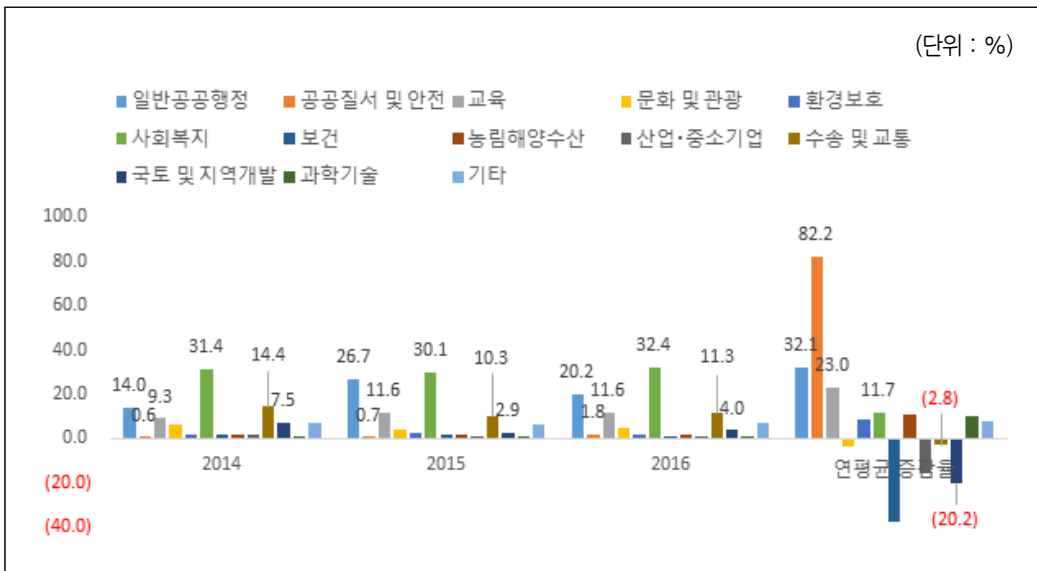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세통계연감.

- 둘째, 세출의 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50~52%로 경제개발비 17~26%, 일반행정비 15~27%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감률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34.7%로 사회개발비 10.3%, 경제개발비 -6.7%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민선 3기, 4기, 5기와의 다른 특징은 사회개발비의 지출 비중이 매해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경제개발비의 지출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임.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사회복지 30~32%이며, 그다음이 일반공공행정 14~27%, 수송 및 교통 10~14%, 교육 9~12%, 국토 및 지역개발 3~8%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의 비중(30~32%)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항목임.
  - 반면에 민선 3기, 4기, 5기와 비교하여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등은 비중이 감소하였음.
- 민선 6기의 경우에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른 복지수요 관련 사업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인천의 가치 창출 사업 위주로 재정을 지출을 하면서, 지역기반 SOC사업 등은 마무리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됨.



〈그림 20〉 민선 6기 인천시 분야별 세출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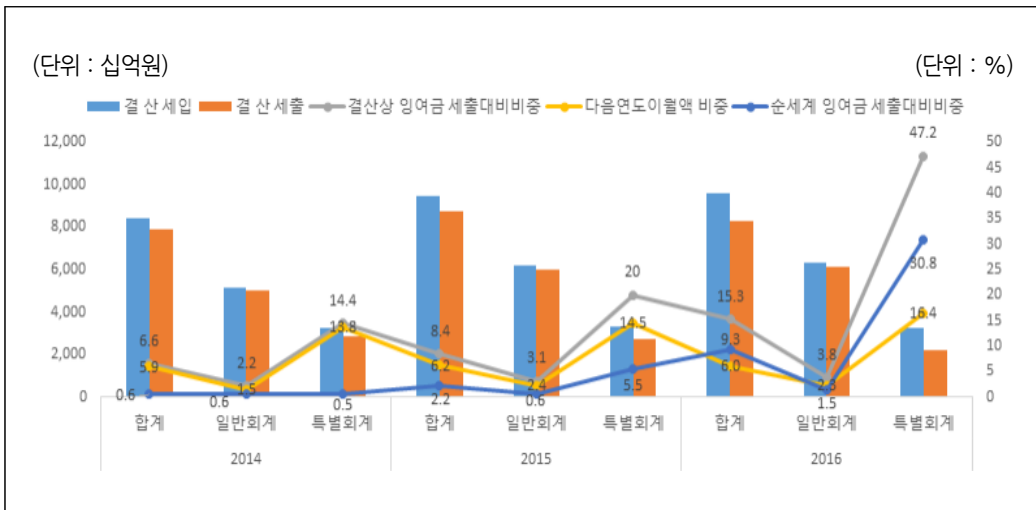
〈그림 21〉 민선 6기 인천시 세부 항목별 세출

주 :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 결과의 효과성

- 민선 6기 인천시 재정운용 결과(결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와 채무 규모를 살펴봄.

- 첫째,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은 2014년 6.6%에서 2016년 15.3%로 2배가량 증가함.
  - 다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세출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비중이 2014년 2.2%에서 2015년 3.8%로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세입을 지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둘째,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의 비중은 전체 세출에서 6~9%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비중은 1.5~2.5% 수준으로 민선 3기(10~16%), 4기(3~12%), 5기(2.5~4%)와 비교하여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범 첫해와 마지막 해의 추세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일반회계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 비중이 민선 3기에는 15.7%에서 9.8%로, 민선 4기에는 12.4%에서 3.0%로, 민선 5기에는 3.9%에서 3.0%로 감소한 것과 달리 민선 6기에도 1.5%에서 2.8%로 증가함.
- 셋째, 지방채 상환 및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은 2014년 0.6%, 2015년 2.2%에서 2016년 9.3%로 증가함.
  - 각 민선 정부의 출범 첫해와 마지막 해의 추세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민선 3기에는 13.3%에서 9.6%로 감소, 민선 4기에는 5.4%에서 1.5%로 감소, 민선 5기에는 2.8%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여 민선 6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증가함.
  - 이는 채무감축 기조를 유지해 온 민선 6기의 재정운용 계획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정관리를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고 이를 지방채 상환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음.



〈그림 22〉 민선 6기 인천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넷째, 채무 규모는 발행액이 연평균 60.8%씩 감소하고, 상환액이 16.6%씩 줄어든 영향에 따라 채무잔액이 연평균 6.3%씩 감소함.
  -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100%씩, 특별회계는 연평균 57.5%씩 채무 발행액이 감소함.
  - 채무잔액의 감소율은 일반회계가 연평균 12.5%로 특별회계의 3.4%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재정정상단체의 전환을 목표로 민선 6기가 추진하였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운영에 따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음.

〈표 21〉 민선 6기 인천시 항목별 채무 발생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합계	발행액	786,573	908,645	121,015	-60.8
	상환액	687,219	946,261	478,113	-16.6
	채무잔액	3,258,066	3,220,450	2,863,352	-6.3
일반회계	발행액	117,784	107,040		-100.0
	상환액	183,942	128,050	229,086	11.6
	채무잔액	1,063,440	1,042,430	813,344	-12.5
특별회계	발행액	668,789	801,585	121,015	-57.5
	상환액	503,277	818,210	249,027	-29.7
	채무잔액	2,194,626	2,178,020	2,050,008	-3.4
공기업	발행액	378,662	272,360	121,015	-43.5
	상환액	243,252	264,049	130,851	-26.7
	채무잔액	971,741	980,072	970,236	-0.1
기타	발행액	290,127	529,225		-100.0
	상환액	260,025	554,161	118,176	-32.6
	채무잔액	1,222,885	1,197,948	1,079,772	-6.0

자료 : 인천광역시(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5) 소결(종합)

- 재정운용 과정의 추진 단계 즉, 계획-집행-결과에 따라 인천시 재정운용 과정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것은 다음의 <표 22>와 같음.
- 첫째, 계획의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운용의 방향은 크게 ① (민선 3기·4기)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기반으로 한 국제도시로의 성장, ② (민선 5기) 경제수도 인천 건설 및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 ③ (민선 6기) 재정건전성 회복 및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으로 변화하였음.
  - 민선 3기, 4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재정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의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의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한 국제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하였음.
  - 민선 5기에는 경제수도 인천의 건설을 위한 경제기반의 마련과 무상보육, 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핵심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의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음.
  - 민선 6기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과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재정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분야별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민생, 교통, 문화, 환경, 해양, 경제, 교육 주권의 실현을 추진하였음.
- 민선 3기에서 민선 6기로 갈수록 계획한 예산 대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당초 계획보다 세입이 확보되지 못한 반면, 세출은 증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규모가 감소함.
- 둘째, 집행의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운용의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민선 3기, 4기, 5기에는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보조금과 지방채 규모는 증가한 반면, 민선 6기에는 지방세수입과 보조금이 증가하고 지방채 규모는 감소함.
  - 민선 3기와 4기의 지방세수입 감소는 정부의 거래과세 감면 정책으로 인한 등록세 등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었으며, 지방채의 증가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방채의 발행에 기인함.
  - 민선 5기에 유독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등의 자산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함.

- 민선 6기의 지방세수입 증가와 지방채 규모 감소는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소비과세 및 취득세의 증가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인천시의 세수 확보 및 부채 감축 등의 노력이 반영된 데 따름.
- 인천시 재정운용의 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민선 3기와 4기에는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세출이 증가한 반면, 민선 5기와 6기에는 사회개발비 및 일반행정비를 중심으로 세출이 증가함.
  - 민선 3기와 4기에는 지역경제개발, 교통관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국토자원보존개발을 중심으로 세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 지역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조성 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민선 5기와 6기에는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세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채무 및 이자 상환을 위한 금융행정비의 증가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회복지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민선 3기부터 민선 6기까지 인천시의 사회복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약 10%에서 32%까지 증대되었음.
- 마지막으로, 결과 및 성과의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운용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결과 등을 살펴보면, 민선 3기에서 민선 6기로 갈수록 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채무 규모 등이 감소함.
  - 민선 3기, 4기, 5기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단일회계연도 회계원칙에 따라 재정운용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달리 민선 6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여 재정운용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다만, 민선 6기가 재정정상단체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였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과 민선 6기의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표 22〉 인천시 재정운용의 시기별 성과 분석결과

구분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VS.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기반으로 한 성장</li> <li>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도시로의 자리매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수도 인천 건설 및 3대 핵심사업(무상보육·교육·일자리 창출) 추진</li> <li>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기존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추진</li> <li>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 추진</li> <li>인천의 7대 주권(민생·교통·문화·해양·환경·경제·교육)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대비 세입 : 유사(±2%)</li> <li>계획 대비 세출 : 감소(25%)</li> <li>계획 대비 이월 또는 불용 : 증가(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대비 세입 : 유사(2~5%↓)</li> <li>계획 대비 세출 : 감소(20%)</li> <li>계획 대비 이월 또는 불용 : 증가(7~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대비 세입 : 감소(5~11%↓)</li> <li>계획 대비 세출 : 감소(15%)</li> <li>계획 대비 이월 또는 불용 : 증가(5~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대비 세입 : 유사(1%-6%↓)</li> <li>계획 대비 세출 : 감소(13%)</li> <li>계획 대비 이월 또는 불용 : 증가(5~13%↑)</li> </ul>
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감소(5%↓)</li> <li>- 55.3% → 50.1%</li> <li>- 주요 원인 : 취득세, 등록세 감소</li> <li>보조금 증가(2%↑)</li> <li>- 9.3% → 11.8%</li> <li>지방채 증가(5%↑)</li> <li>- 1.4% → 6.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감소(11%↓)</li> <li>- 49.5% → 38.4%</li> <li>- 주요 원인 : 등록세 감소(정부 감면정책)</li> <li>보조금 증가(4%↑)</li> <li>- 13.0% → 16.7%</li> <li>지방채 증가(7%↑)</li> <li>- 3.7% → 1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감소(11%↓)</li> <li>- 48.9% → 38.3%</li> <li>- 특이 사항 : 자동차세 증가(연평균 33%↑)</li> <li>세외수입 증가(3%↑)</li> <li>- 21.3% → 24.7%</li> <li>보조금 감소(3%↓)</li> <li>- 19.1% → 15.9%</li> <li>지방채 증가(11%↑)</li> <li>- 1.6% → 1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증가(2%↑)</li> <li>- 46.7% → 48.3%</li> <li>- 주요 원인 : 지방소득세(연평균 20%↑)</li> <li>보조금 증가(0.4%↑)</li> <li>- 18.8% → 19.2%</li> <li>지방채 감소(1.5%↓)</li> <li>- 1.7% → 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li> <li>· 사회개발 : 42~46%</li> <li>· 경제개발 : 23~29%</li> <li>· 일반행정 : 6~8%</li> <li>▷ 연평균 증감률</li> <li>· 사회개발 : 12.9%</li> <li>· 경제개발 : 18.3%</li> <li>· 일반행정 : 9.5%</li> <li>(주요 항목)</li> <li>- 지역경제개발 43%</li> <li>- 교통관리 27%</li> <li>- 보건생활개선 24%</li> <li>- 사회보장 16%</li> <li>- 국토보존개발 11%</li> <li>▷ 사회복지 비중 약 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li> <li>· 사회개발 : 42~50%</li> <li>· 경제개발 : 23~33%</li> <li>· 일반행정 : 5~17%</li> <li>▷ 연평균 증감률주)</li> <li>· 사회개발 : (품목별) 16.5%</li> <li>(사업별) 30.1%</li> <li>· 경제개발 : (품목별) 8.8%</li> <li>(사업별) 25.5%</li> <li>· 일반행정 (품목별) -2.3%</li> <li>(사업별) 22.2%</li> <li>▷ 사회복지 비중주) 약 16%, 약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li> <li>· 사회개발 : 44~50%</li> <li>· 경제개발 : 23~28%</li> <li>· 일반행정 : 15~26%</li> <li>▷ 연평균 증감률</li> <li>· 사회개발 : 12.0%</li> <li>· 경제개발 : 10.1%</li> <li>· 일반행정 : 29.4%</li> <li>(주요 항목)</li> <li>- 일반공공행정 31%</li> <li>- 문화 및 관광 21%</li> <li>- 수송 및 교통 17%</li> <li>- 사회복지 13%</li> <li>- 교육 10%</li> <li>▷ 사회복지 비중 약 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li> <li>· 사회개발 : 50~52%</li> <li>· 경제개발 : 17~26%</li> <li>· 일반행정 : 15~28%</li> <li>▷ 연평균 증감률</li> <li>· 사회개발 : 10.3%</li> <li>· 경제개발 : -6.7%</li> <li>· 일반행정 : 34.7%</li> <li>(주요 항목)</li> <li>- 공공질서안전 82%</li> <li>- 일반공공행정 32%</li> <li>- 교육 23%</li> <li>- 국토지역개발 -20%</li> <li>- 수송 및 교통 -3%</li> <li>▷ 사회복지 비중 약 31%</li> </ul>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회계 세출 대비)</li> <li>· 결산상 잉여금 비중 : 감소 추세(↘)</li> <li>· 순세계잉여금 비중 : 감소 추세(↘)</li> <li>(본청 연평균 증감률)</li> <li>· 채무 발행 : 104.0%</li> <li>· 채무 상환 : 172.8%</li> <li>· 채무 잔액 : 29.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회계 세출 대비)</li> <li>· 결산상 잉여금 비중 : 감소 추세(↘)</li> <li>· 순세계잉여금 비중 : 감소 추세(↘)</li> <li>(본청 연평균 증감률)</li> <li>· 채무 발행 : 57.6%</li> <li>· 채무 상환 : -6.9%</li> <li>· 채무 잔액 : 28.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회계 세출 대비)</li> <li>· 결산상 잉여금 비중 : 증가 추세(↗)</li> <li>· 순세계잉여금 비중 : 증가 추세(↗)</li> <li>(본청 연평균 증감률)</li> <li>· 채무 발행 : 34.0%</li> <li>· 채무 상환 : 71.9%</li> <li>· 채무 잔액 : 5.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회계 세출 대비)</li> <li>· 결산상 잉여금 비중 : 증가 추세(↗)</li> <li>· 순세계잉여금 비중 : 증가 추세(↗)</li> <li>(본청 연평균 증감률)</li> <li>· 채무 발행 : -60.8%</li> <li>· 채무 상환 : -16.6%</li> <li>· 채무 잔액 : -6.3%</li> </ul>

주 : 2008년부터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가 '사업별 예산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세출 항목이 변경되었음.



## IV

# 인천시 재정운용의 방향 및 과제



## IV. 인천시 재정운용의 방향 및 과제

### 1. 인천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

- 인천시의 재정에는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세수 감축과 부동산 경기의 진작을 위한 취득세의 인하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배 구조의 악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 수요 증대, 그리고 인천시의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
- 이러한 환경적, 구조적, 내부적 문제들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유발하여 인천의 경제성장 및 경기회복을 둔화시키는 한편, 재정운용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 구조로 되풀이 될 우려가 있음.
-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 한계와 세입·세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첫째, 계획-집행-평가-환류 등 지방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 재정운용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리를 통해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탐색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 나아가 재정위기 지정단체 경험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
- 둘째,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정부 및 인천시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 세출 구조 개선이 필요함.

## 2. 재정운용의 미래 과제 도출

### 1) 계획

####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분야별 지역개발 계획들과의 유기적 연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융통성 있는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동화 계획임.
-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역개발 계획(도시, 환경, 교통 등)과도 별개로 운용되고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요 예측 및 재정 전망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종합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마련되기 어려운 실정임.
- 다분야별 지역개발 계획 간의 체계를 명확히 세우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지침 마련을 통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분야별 계획 수립 시에도 심도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한 사전 검토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에 거대한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sup>1)</sup>.
- 인천시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신규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수입과 지출의 변화 분석을 통해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을 해야 함.
-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한 사전 검토로 낭비성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악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1.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 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이상인 사업



## 2) 집행

### ■ 세입 : 재정 확충

- 첫째,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기조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구조 개선(지방세 비율 확대 노력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상응하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합리적인 세목 조정을 통해 지방세수입을 확충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연계되는 조세 제도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법인분의 세율 인상 추진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노력에 대응
- 둘째, 신세원의 발굴, 과세대상의 확대, 탄력세율의 활용 등 신규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
  - 예를 들어 벌크 화물세의 도입, 상하수도 원가 계산의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검토 등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부담금의 지방이양 노력 :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의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 노력

### ■ 세출 : 재정지출 사업 조정

-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마련
  - 현재 인천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따른 지속적인 복지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등의 생산적 복지의 지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지금까지 투자되어 온 SOC사업 등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보다는 기존 사업의 관리와 개선의 차원에서 재정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 구조의 개편과 재정집행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 세출의 효율성 차원 재정운용의 구조조정

- 재정사업의 운용에 있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은 재원과 사업의 혼재, 사업의 계획성 결여, 유사·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등임.
-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부분적·미시적인 사업 수의 조정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유사·중복 사업의 발굴이나, 사업의 규모 조정, 중·장기계획의 마련 등과 같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의 수행이 필요함.

### 3) 재정관리

#### ■ 통합적인 재정관리제도 운영

- 현재 지방재정관리를 위한 사전적 제도로는 계획 및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이 있으며, 사후적 제도로는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차원에서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지방재정분석제도, 결산분석 등이 실시되고 있음.
- 그런데 각 제도의 개별적인 운영으로 인해 제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기능의 중복 및 상충으로 인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환류 등과 같은 재정운용의 전 과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관리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임.
- 재정운용의 과정에 맞추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연계 및 통합하고, 재정운용과 재정관리 간의 상호 연계 및 환류 과정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통합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김재영·백형배. (2015).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 원인 분석 : 재정관리 요인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4) : 139-163.
- 이원희. (2018). “인천시 재정구조의 특징과 재정 분권의 과제”, 『자치분권 개헌 및 인천광역시의 자치분권 전략과 재정관리』, 한국지방자치학회-인천연구원 공동기획 세미나, 찾아가서 함께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기획세미나 : 인천연구원편, 95-126.
- 인천광역시. (각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인천광역시. (각연도). 『예산서 및 예산개요』.
- 인천광역시. (각연도). 『시정발자취』.
- 인천광역시. (각연도). 『시정백서』.
- 인천광역시. (각연도). 『실국별 업무계획』.
- 인천광역시. (2017). 『우리는 애인(愛仁) : 민선 6기 3년의 이야기와 희망』.
- 임상수·박지혜. (2014). 『지방재정건전화법 도입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행정안전부. (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행정자치부. (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행정자치부. (각연도). 『지방세통계연감』.

2018년도 기획연구과제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재정 분야**

---

발행인 이용식

발행일 2018년 9월 30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쇄처 032디자인(주)

ISBN 978-89-5678-751-0 9335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

---

© 인천연구원 201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